도시복본문 2011.8.4 3:26PM 페이지5 NO.3 Adobe PDF

예천군민의 자랑

하늘이 낳은 효자
도시복

글·그림 / 임 강 촌



예천문화원

도시복본문 2011.8.4 3:26PM 페이지6 NO.3 Adobe PDF



◈ 작가의 말 ◈

무릇 효라는 것은 백행의 근본이고 모든 선의 으뜸이다. 자식이 어버이에 대한 정성으로 공경하는 일은 이세상의 자식들이 행하여야 하는 마땅한 도리인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 시복은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며 이름 없이 살면서 학문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특출한 효성으로 주변 사람들과 산 짐승들은 물론 하늘까지 감동시킨 실존 인물로 그의 효행기록은 「명심보감 속편」효행편에 실려져 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천은 훌륭한 학자와 문인은 물론 입으로 하는 학문이 아니라 효를 직접 실천했던 인물들이 무수한데 예천지역 곳곳에 세워져 있는 효열각과 정려각에서 그 자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책은 예천출신의 충효 인물 중 한사람인 하늘도 감동한 효자 도시복의 생애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화로 만들어 물질과 욕망이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인 효를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해 만들게 되었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이현준 예천군수님과 편찬에 많은 고생을 하신 김종배 예천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1년 6월
임 강촌

도시복본문 2011.8.4 3:26PM 페이지7 NO.3 Adobe PDF



차례

작가의 말_6

제 1 화 도효자의 탄생_8

제 2 화 솔개와 호랑이_27

제 3 화 채소밭 사건_47

제 4 화 꿩고기로 고친 부친의 병_59

제 5 화 농사를 도와준 호랑이_64

제 6 화 개가 키운 고양이 새끼_67

제 7 화 얼음구멍에서 나온 잉어_71

제 8 화 저절로 들어온 노루_75

제 9 화 동짓날에 수박을 구하다_82

제 10 화 여막에서 일어난 일_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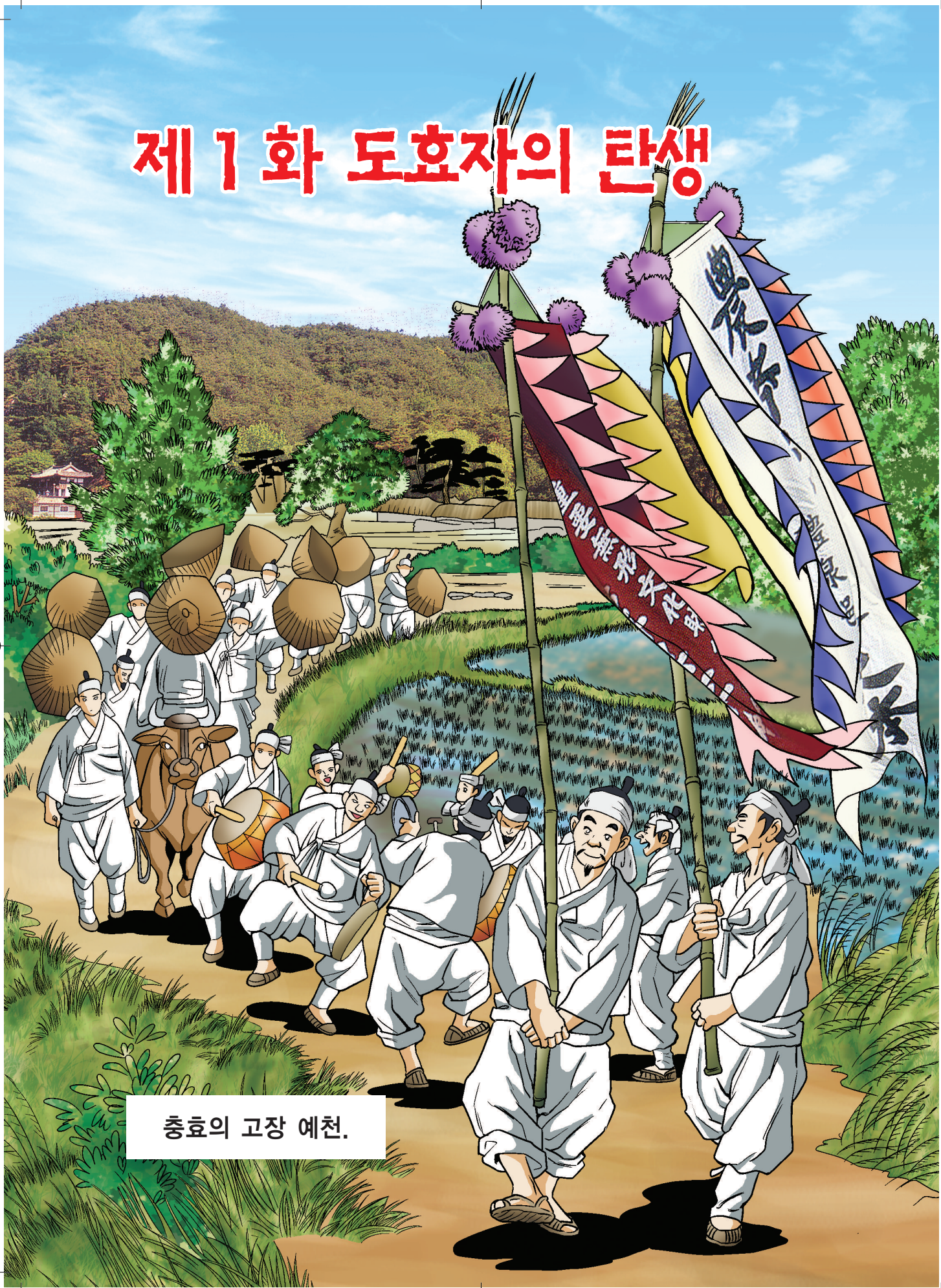
제 11 화 여름철에 홍시를 구하다_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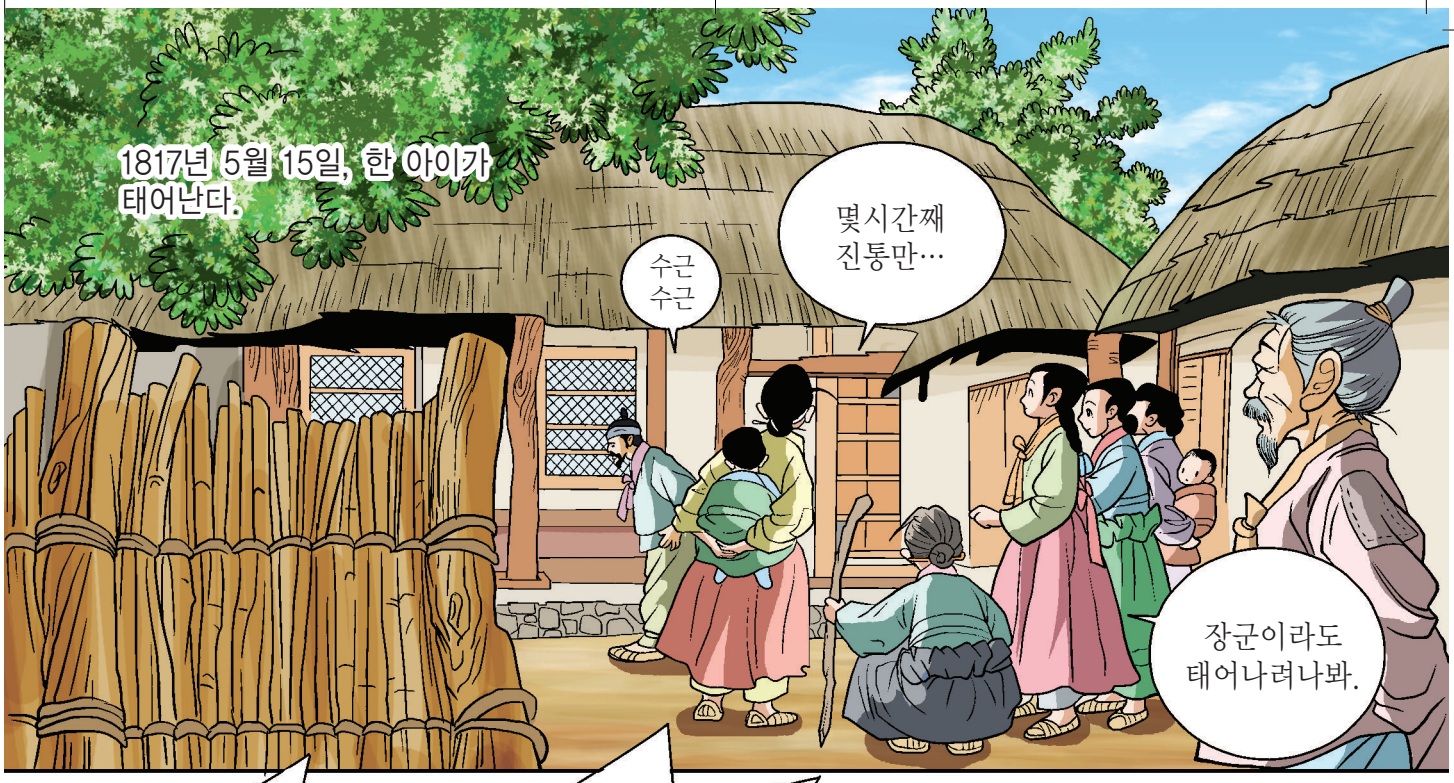
제 12 화 서리와 우박피해를 면하다_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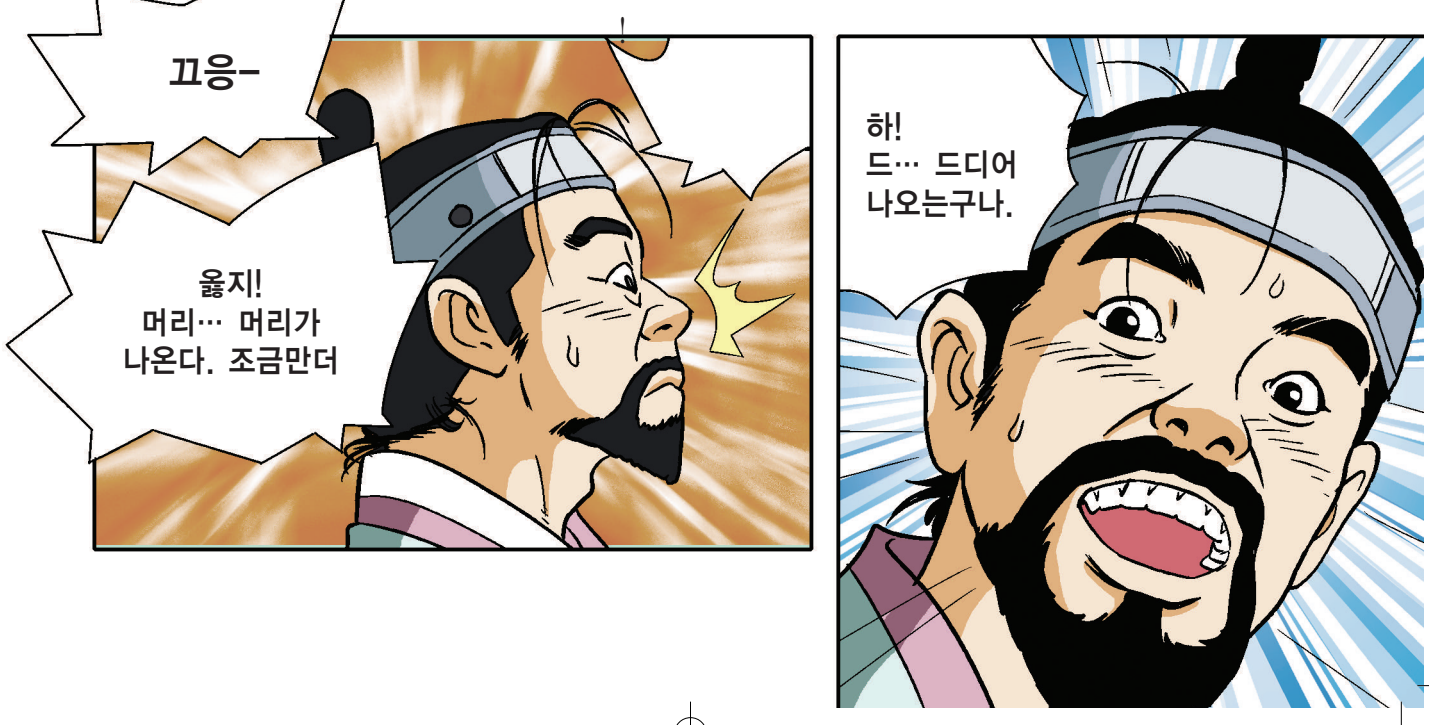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6PM 페이지8 NO.3 Adobe PDF

제 1 화 도효자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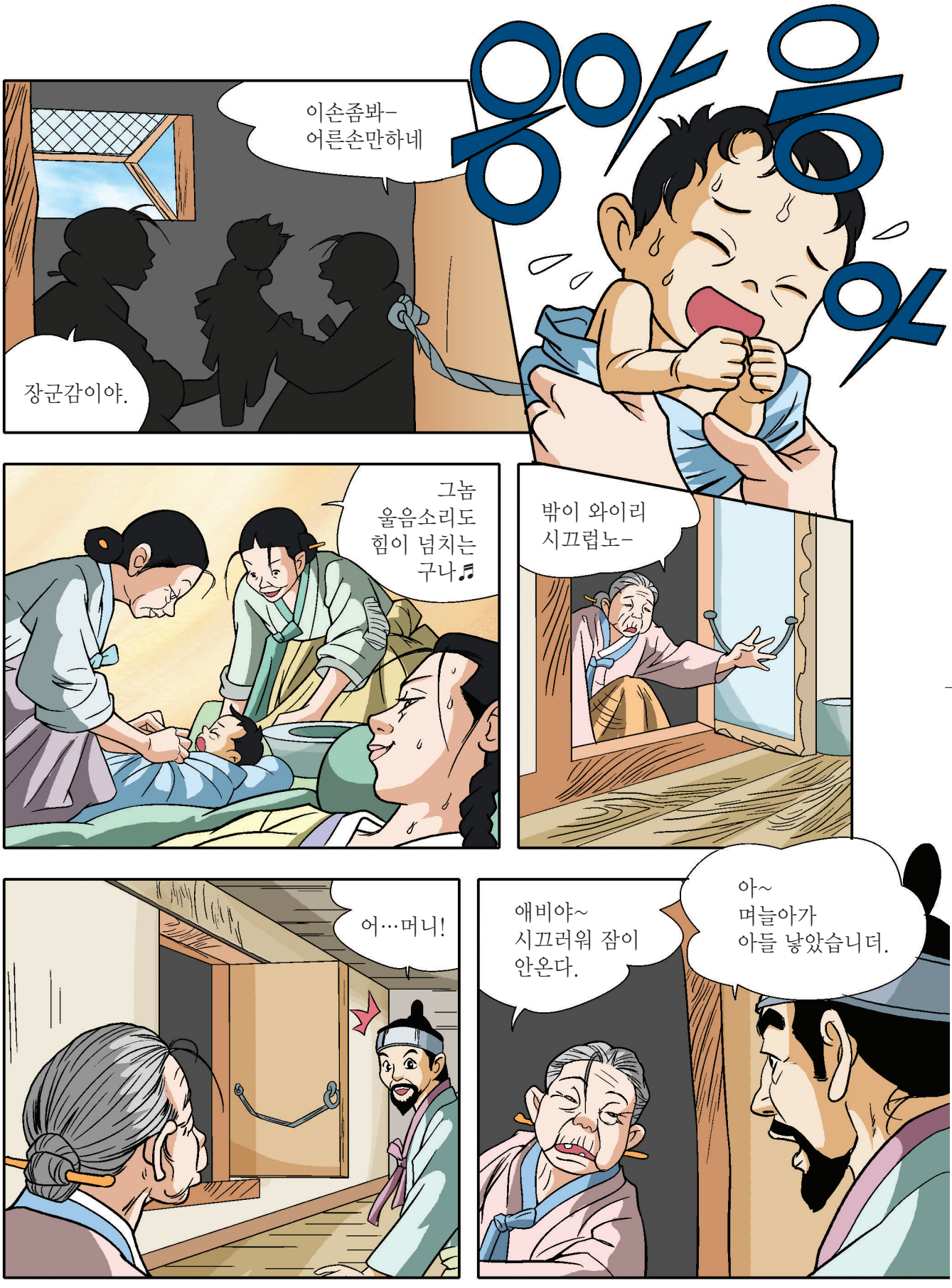

1817년 5월 15일, 한 아이가 태어난다.
수근 수근
몇시간째 진통만…
장군이라도 태어나려나봐.


아악-
조금만더 힘을 줘~
후아~


끄응-
옳지! 머리… 머리가 나온다. 조금만더
하! 드… 드디어 나오는구나.


나왔다!!
드… 드디어 나왔다아~~
만세!!
방방
응애
응애
그놈 울음소릴 들어보니 아들이 틀림 없구만.
아들이오!
벌컥
어구~이놈 고추좀봐 실하기도하지.
고맙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아들아들하더니 이제 소원풀었구만.

도시복본문 2011.8.4 3:26 PM 페이지11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6 PM 페이지12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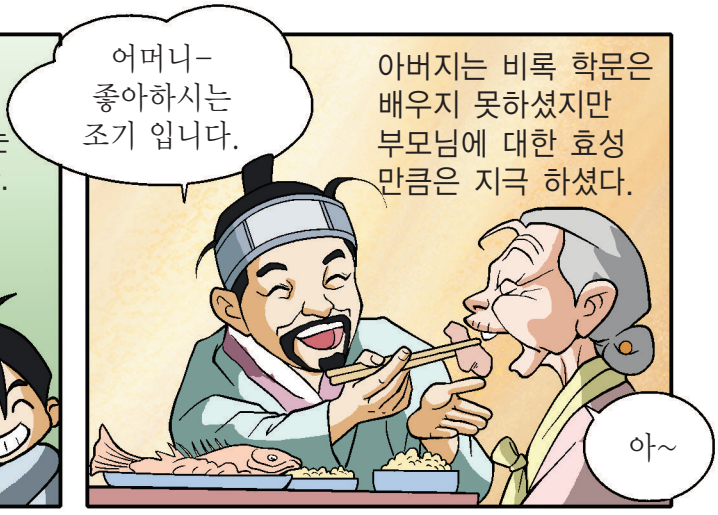



호호호-
요놈도
효자네.
할머니가 못주무신다고
했더니 뚝- 이네요.
허~ 효자집안에
효자 난다더니
효자 중에 으뜸
효자 되려나봐.
그러게요.
웃는 모습좀 봐라~
어찌 이리도 착해
보이노.
내 이름은 도시복.
아버지 도상진과 어머니 강릉 유씨
사이의 5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효를 근본으로 하고있는 성주(星州)도(都)씨 가문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자장~
자장~


이 산골마을에서
몇마지기의 밭을
일구며 어렵게 살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고조부이신 도신우 할아버지는
「형조참의」를 지내셨다고 한다. 아버지의
고조부이신 도신우 할아버지는
「형조참의」를 지내셨다.
오잉! 양반이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조기 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학문은
배우지 못하셨지만
부모님에 대한 효성
만큼은 지극 하셨다.
아~


어린시절부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나는 스스로 다짐하곤 했다.
나~ 개울
가고싶엉~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자가용
가져올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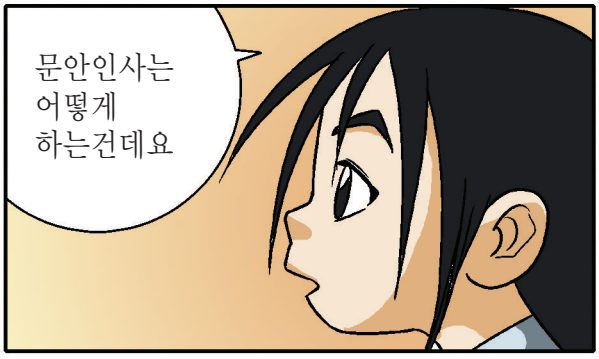

나는 아버지 보다더
훌륭한 효자가
될거야!!!


나는 개울에서
멱감는게
제일 좋아요.♪
시복이
할아버지는
정말 효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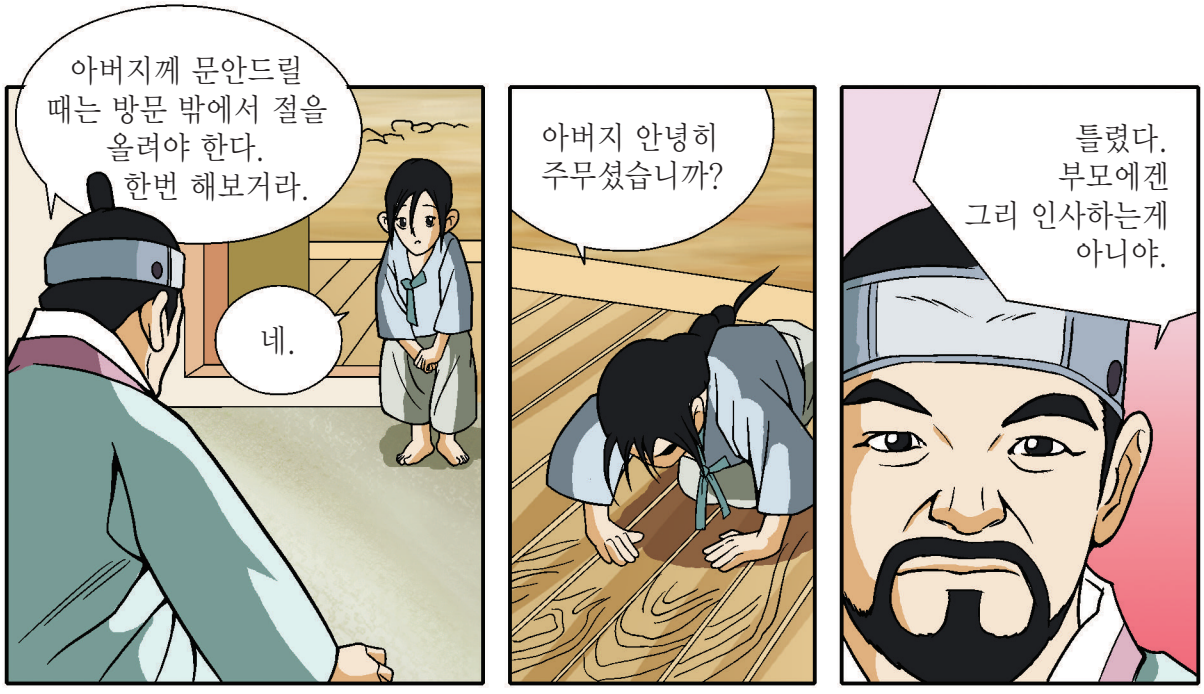

그런 아버지도 내겐
매우 엄하셨다.
시복아-
올라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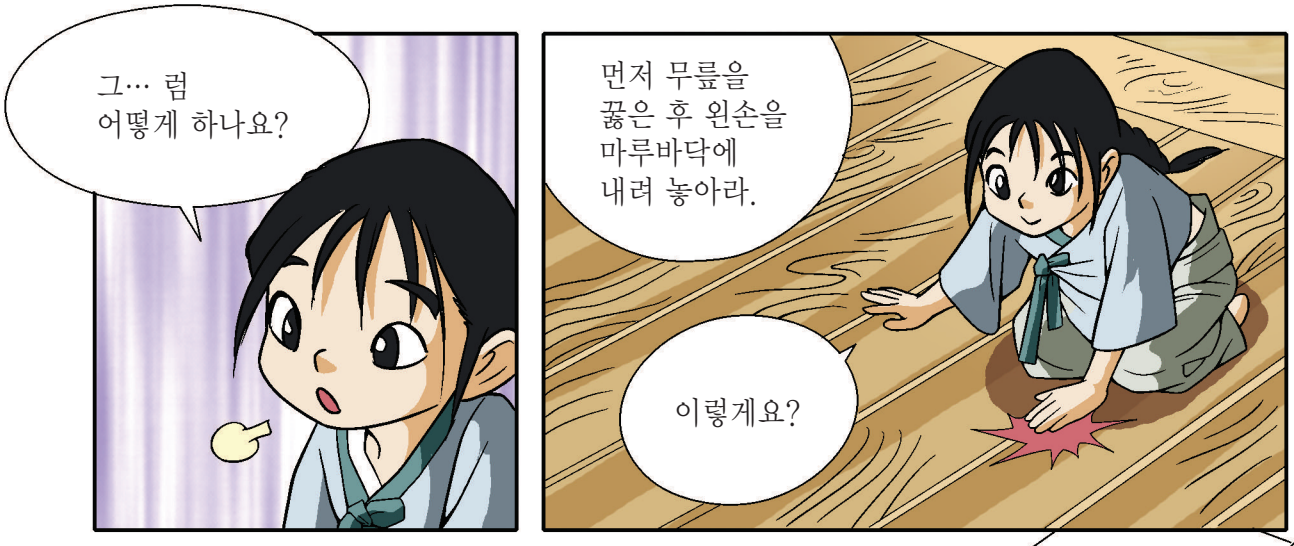

너도 이제 7세가
되었으니
어른에대한 예의를
배워야 할 것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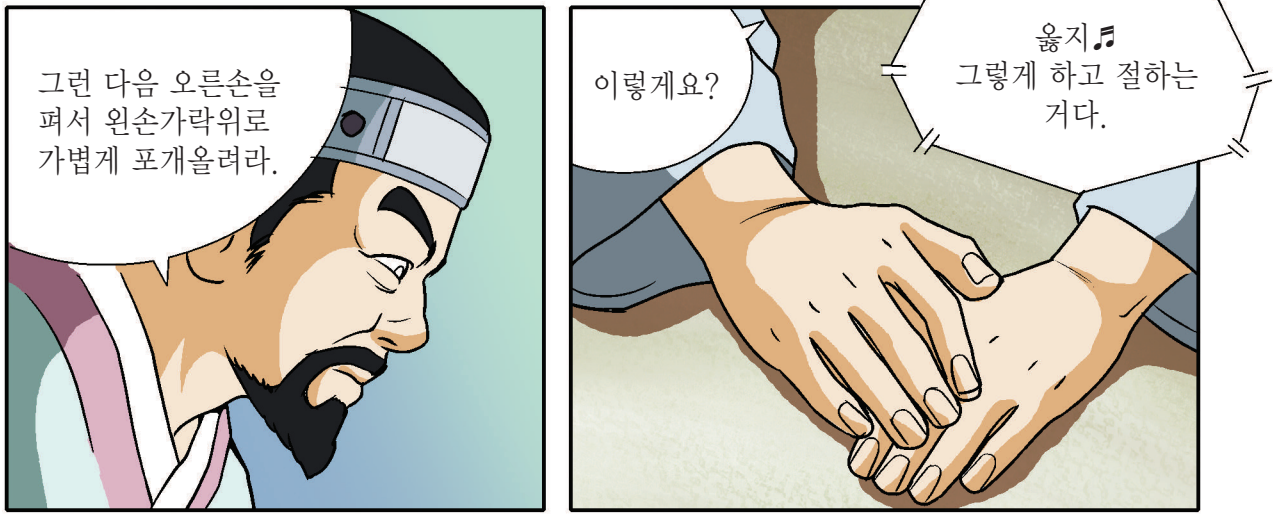

이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께
문안인사를
올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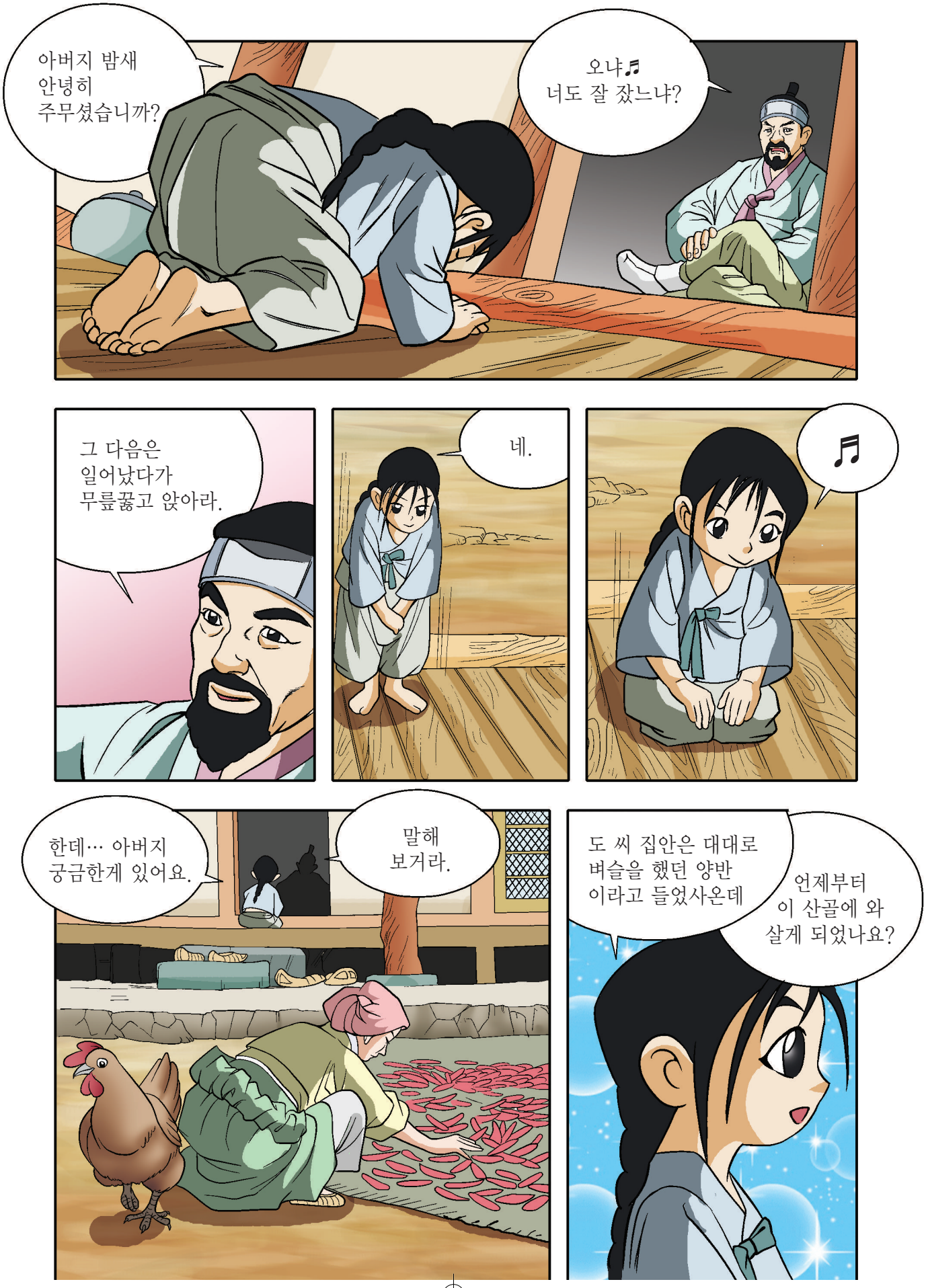

문안인사는
어떻게
하는건데요

도시복본문 2011.8.4 3:26PM 페이지16 NO.3 Adobe PDF








아버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냐♬ 너도 잘 잤느냐?
그 다음은 일어났다가 무릎꿇고 앉아라.
네.
♬
한데… 아버지 궁금한게 있어요.
말해 보거라.
도 씨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했던 양반이라고 들었사온데
언제부터 이 산골에 와 살게 되었나요?

그렇구나.
이제 너도 집안의
내력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지.

이제
방으로 들어와
편히 앉거라.

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집안은 성산 부원군이셨던
「도진」을 중시조로 하고있고 용궁현감
(예천군 서남부지방의 고을원님을 말함)
을 지내신「도이억」의 14대 손이다.

부원군: 왕비의 아버지 또는
정1품 공신의 작호

너로서는 6대조이신「도신우」할아버지께서 형조참의
벼슬을 하셨는데,어느날 벼슬을 그만두시고 식솔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터를 잡으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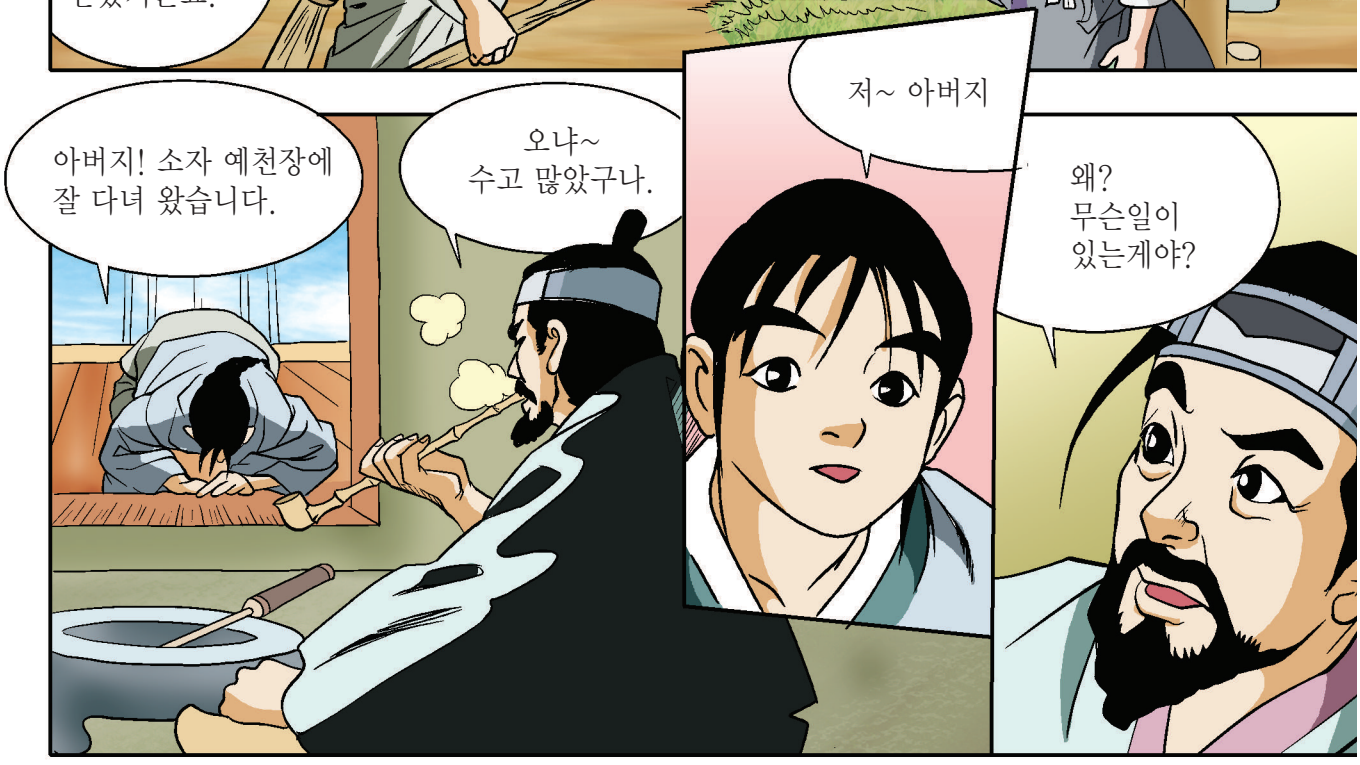
훌륭한 분들을
조상으로 둔
집안이었군요.

허허허!

옛날에
벼슬 안해본
집안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아버지로부터 효를 으뜸으로 삼는 도 씨 가문의 가풍을 배우며 자랐다.
네, 아버지 명심 하겠습니다.
비록 나무를 잘라 숯을 만들어 팔며 밭을 일구고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못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장성하여 청년이 될때까지 어머니는 4남매를 더 낳았다.
동생들이 장성하여 가족이 더 늘어난다면 지금의 농사만 가지고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것이다.
나는 동생들을 위해 땅을 더 가꾸고 개간했다.
화르륵
또한 숯을 더 많이 구워서 예천 장터에 내다 팔았다. 부모님은 물론 어린 동생들이 따듯한 쌀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숯 모두 얼마요?
스물 두 냥만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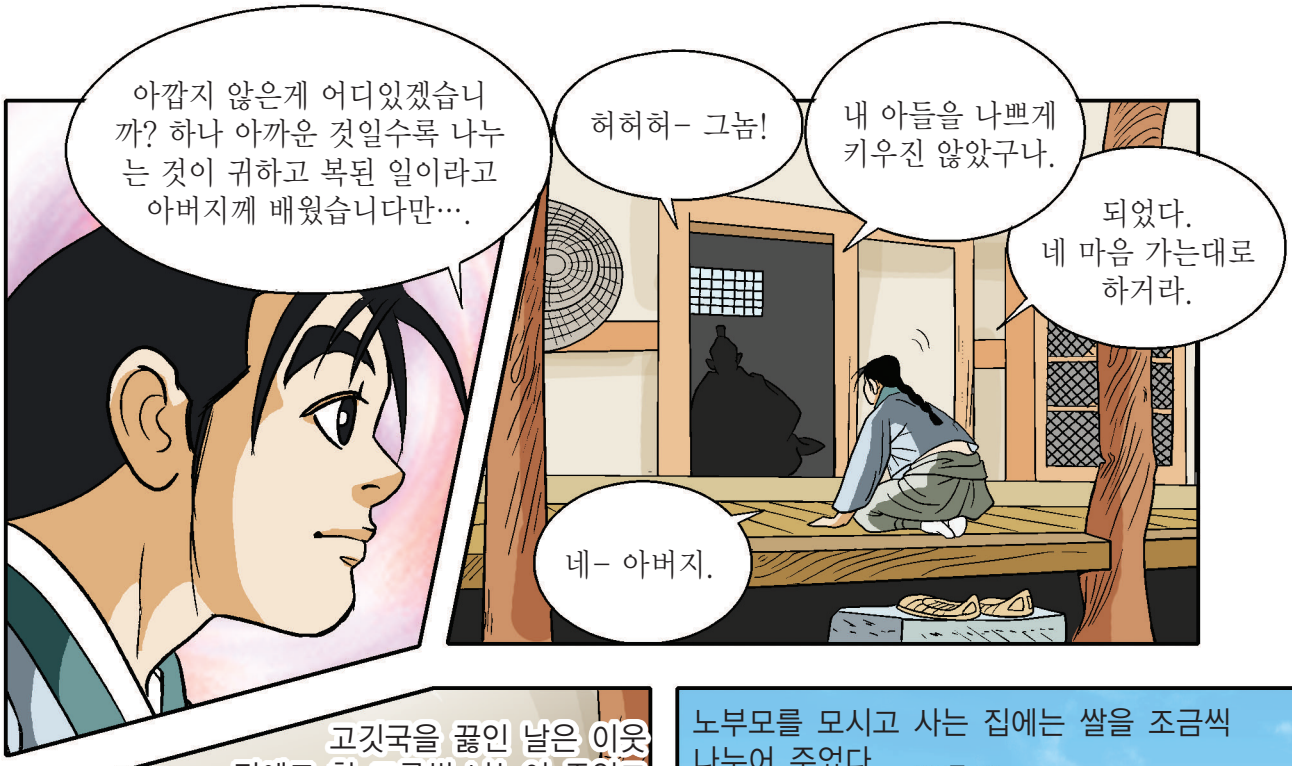

어머니!
오늘 저녁은 소고깃
국에 쌀밥을 지어
식구대로 배불리
먹어봅시다.
형아-
오빠!
수고했다
우리 장남.
숯 값을 후하게
받았거든요.


아버지! 소자 예천장에
잘 다녀 왔습니다.
오냐~
수고 많았구나.
저~ 아버지
왜?
무슨일이
있는게야?


오늘 숯 값을 후하게
받아서 쌀을 좀 넉넉히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 바우네
에 조금 나누어 줄 까
합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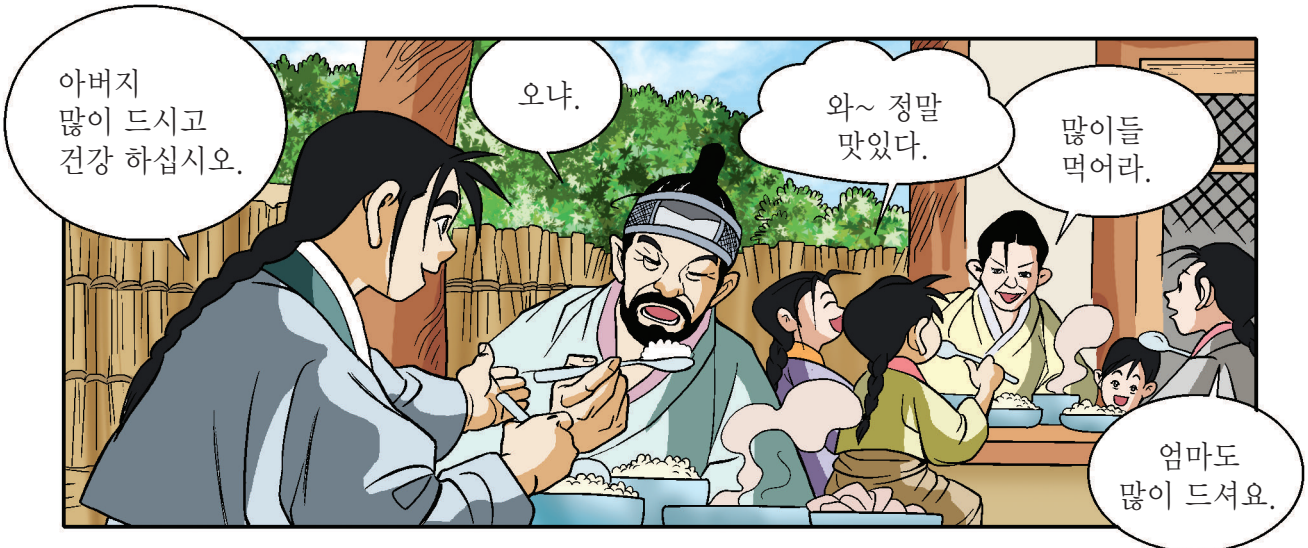

힘들여 숯을 구워
판 돈으로 사온
쌀인데 아깝지
않느냐.
시침 뚝

도시복본문 2011.8.4 3:26 PM 페이지21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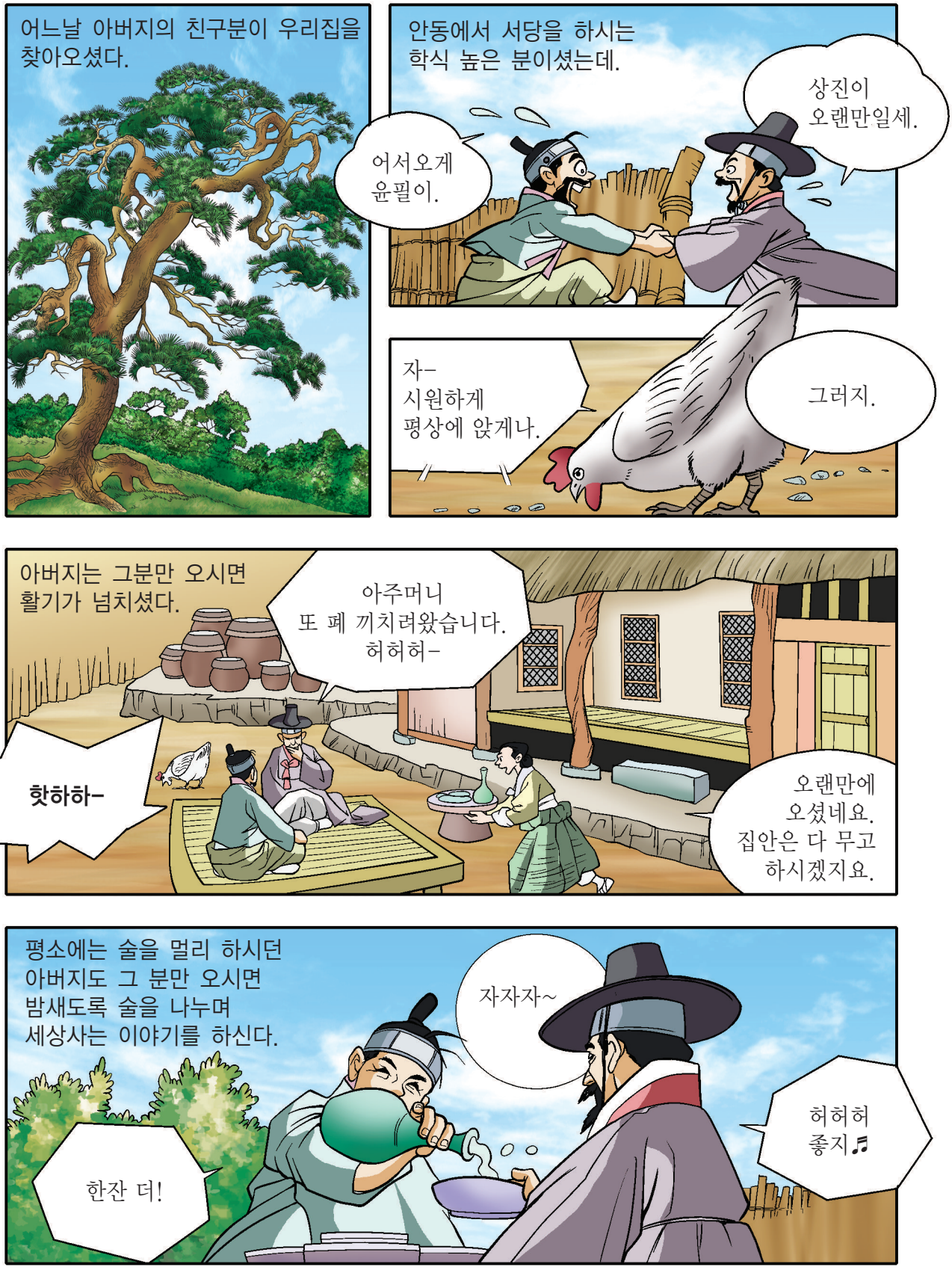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6PM 페이지22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6PM 페이지23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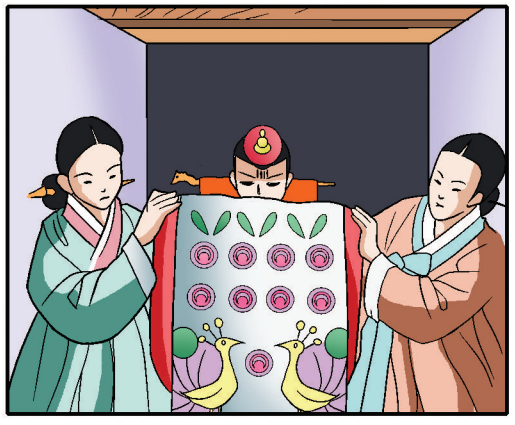

이보게 상진이
시복이 장가보네세.
장가?
이 사람아 시복이는
덩지만 컸지
아직은 어린….
쯧… 어리긴
호랑이도
때려 잡겠구만.
자네 뒷바라지 하랴
5남매 뒷바라지 하랴~
힘든 아주머니도
생각 해야지.
며느리 맞이해서
효도도 받고 아주머니
일손도 덜어 드리면
좀 좋은 일인가?
어디 좋은
규수라도 있는
겐가?
있지♬
♬
고조부가 아마
현감을 지냈을
거야.
곡산 연 씨인데
홍접이라고
자네도 알지
않나?
아!
샌님으로
소문난 그
사인 홍점
말인가?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25 NO.3 AdobePDF














헤~
예쁘당.


아내는 도씨 집안으로 시집와
아래 동생 넷을 모두
출가 시켰다.


순하고 착하며 덕행으로 시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효부라고
칭송했다.
많이 많이
맛있게 드시고
오래오래
사셔요.


나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내려주신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다.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27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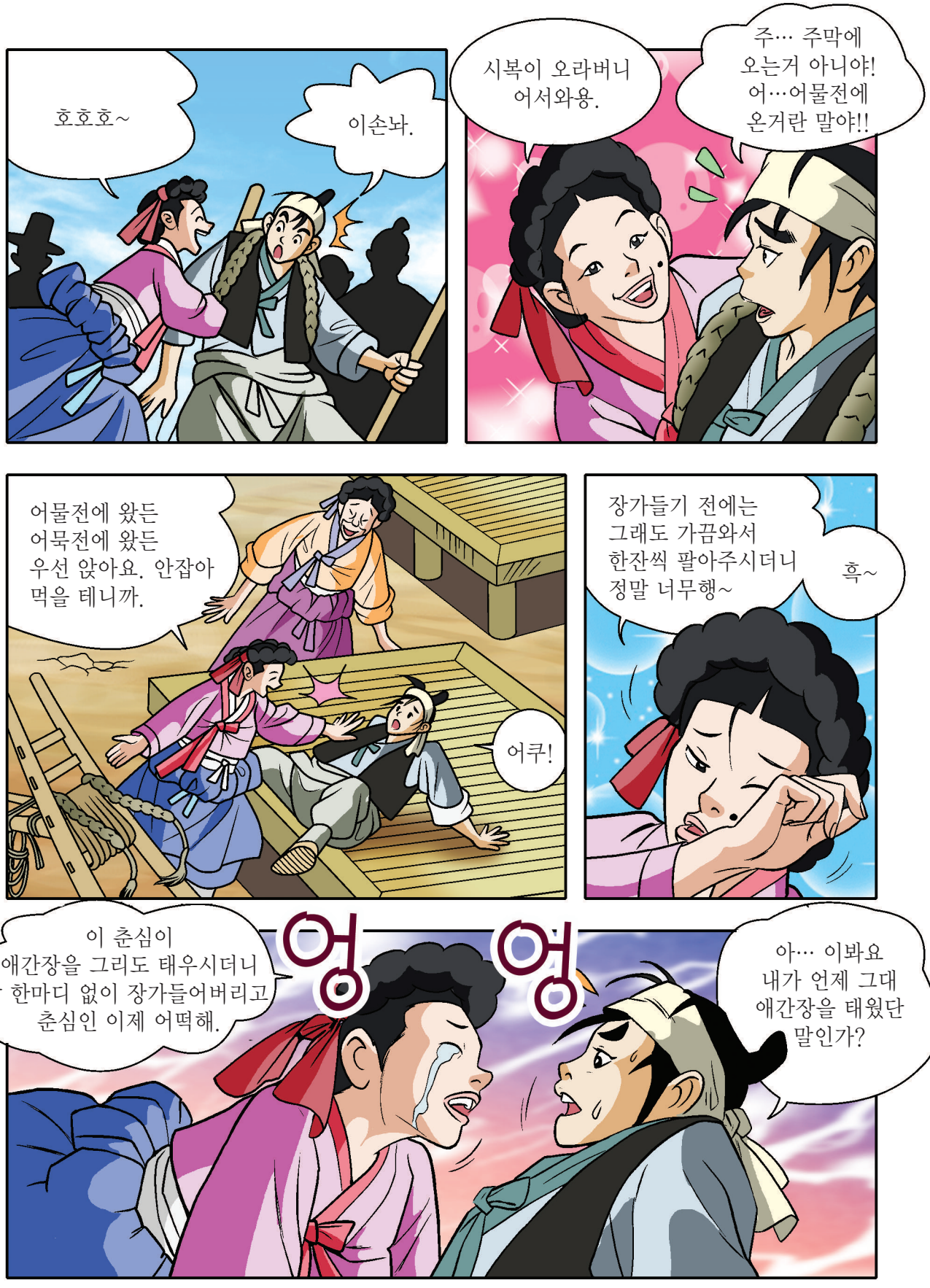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하리장터가 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용문장터가 나온다.


어이~ 시복이 지고가는 숯 우리 주고가지?
예천장에서 파는값 쳐주면 팔죠.
무겁고 힘들텐데 적당한 값에 팔고 가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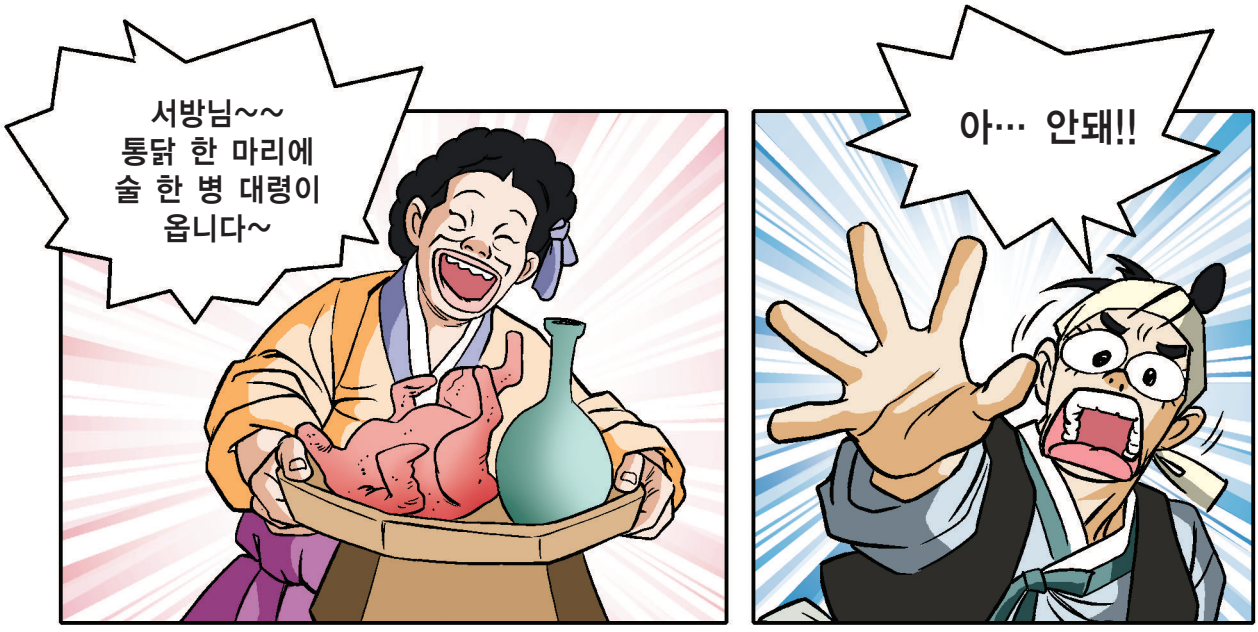

여기서 예천장 까지도 20리길일세 배달료는 빼줘야지.
싫습니다. 제가 건강한데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끙
지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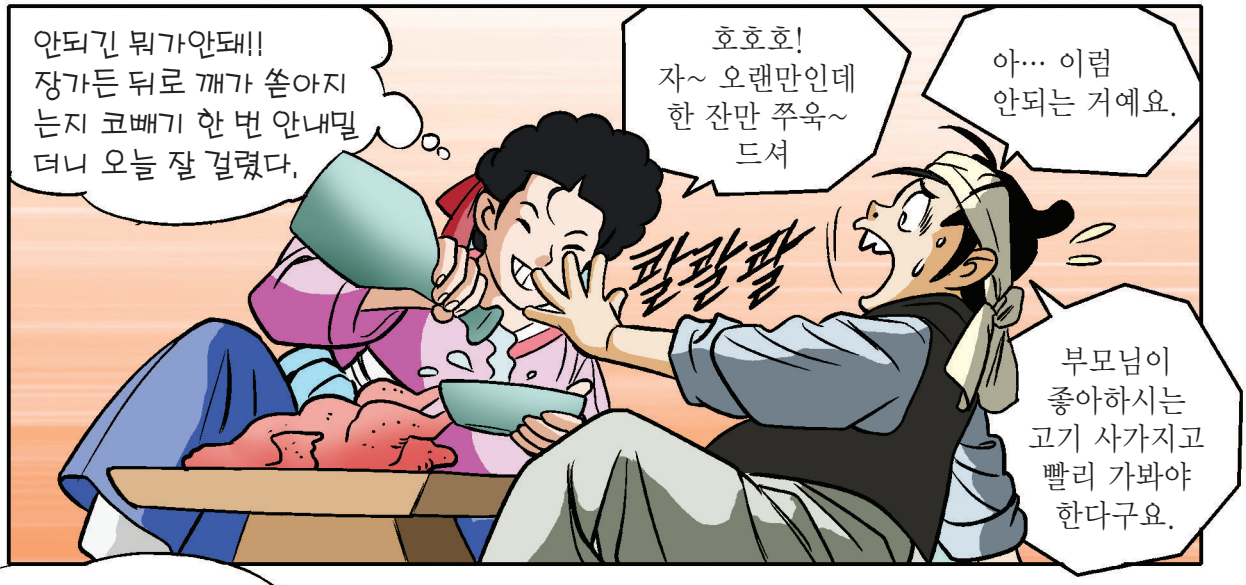

하지만 나는 집에서 40리나 되는 예천장터까지 가서 숯을 팔았다.
오늘은 한 냥 더 쳐줌세.
스물세 냥 일세.
와! 고맙습니다. 어르신.
몇가지 일을 보고 고기반찬을 사야겠어.
酒店
호호호~ 서방님~ 소판돈 쬐금만 털어놓고 가시어용.
가만! 효자 시복이 아닌가!
맞아! 시복이가 웬일이람?
주막쪽은 얼씬도 하지 않더니. 호호호~~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30 NO.3 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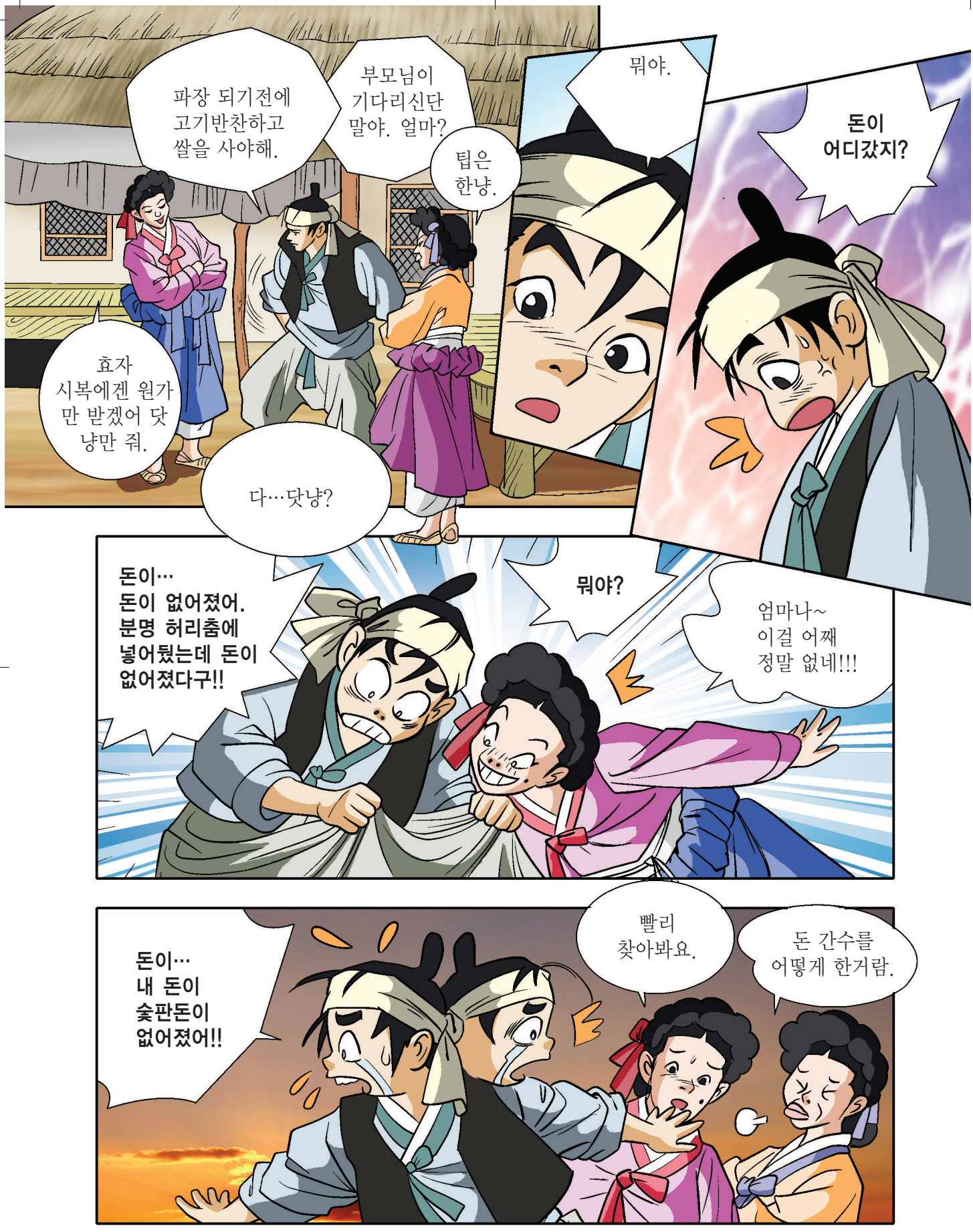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31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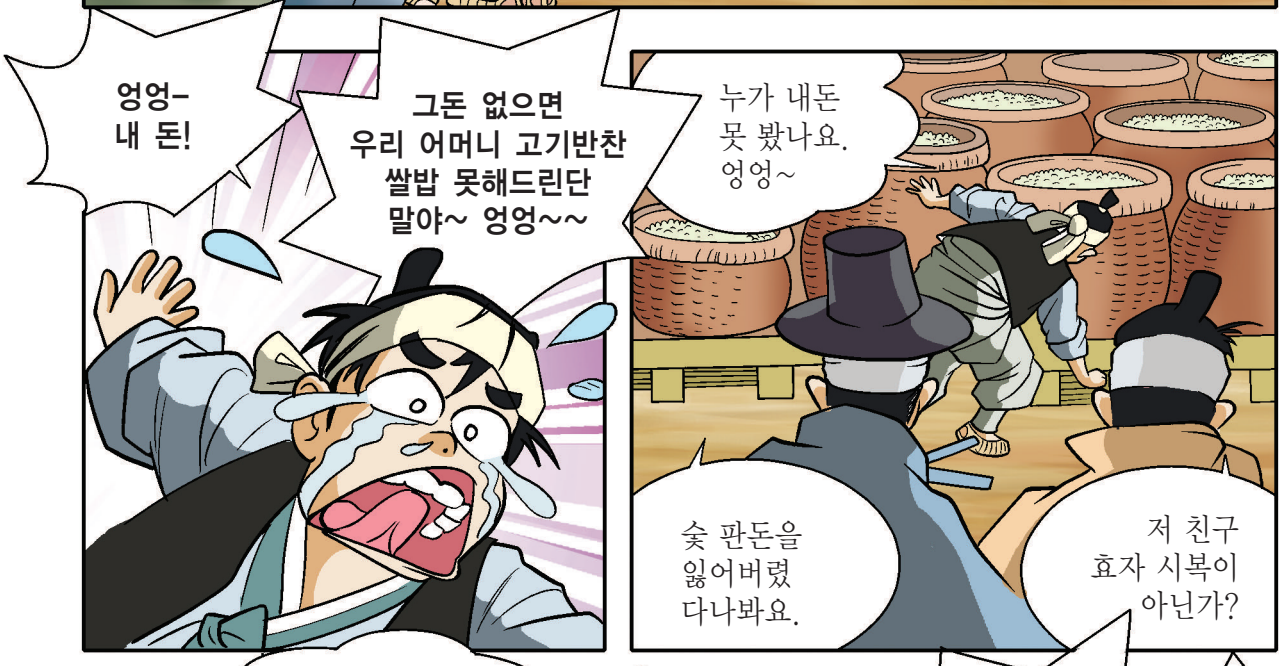





파장 되기전에 고기반찬하고 쌀을 사야해.
부모님이 기다리신단 말야. 얼마?
팁은 한냥.
효자 시복에겐 원가만 받겠어 닷냥만 줘.
다…닷냥?
뭐야.
돈이 어디갔지?
돈이… 돈이 없어졌어. 분명 허리춤에 넣어뒀는데 돈이 없어졌다구!!
뭐야?
엄마나~ 이걸 어째 정말 없네!!!
돈이… 내 돈이 숯판돈이 없어졌어!!
빨리 찾아봐요.
돈 간수를 어떻게 한거람.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33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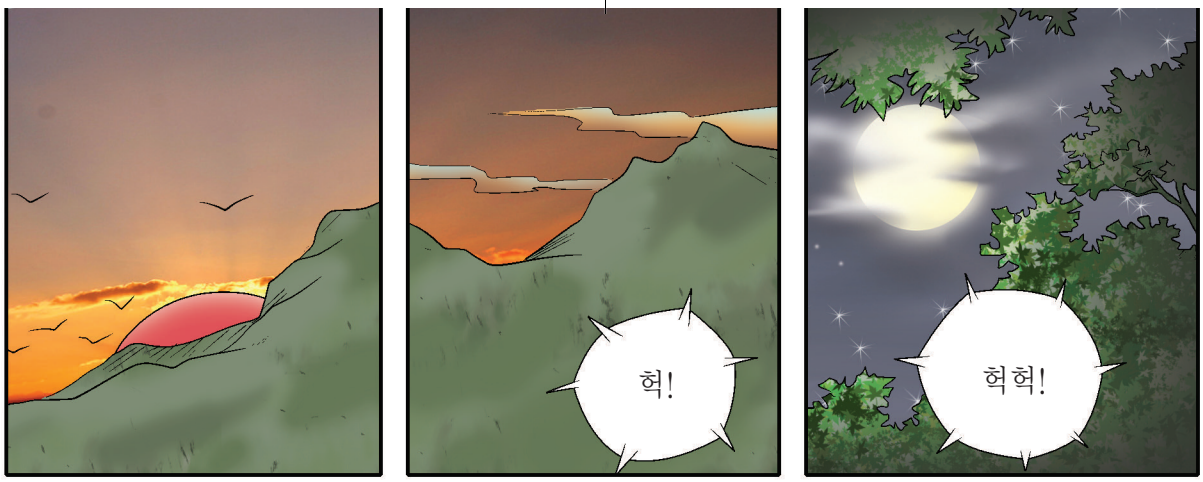





안됐다.
쯧쯧!
엉엉~~
여기
돈이 떨어져
있다아~~!!
어디- 어디
있나요?
파바바바
이 돈 꾸러미는
제것이 아닙니다.
제 것은 스물세 냥
이라구요.
이 돈 꾸러미는
제 것이
아니라구요.
누가 몇 냥 훔쳐
갔는지도
모르잖은가.
하늘이 주신 것이니
그냥 가져가서
고기 반찬이랑
쌀을 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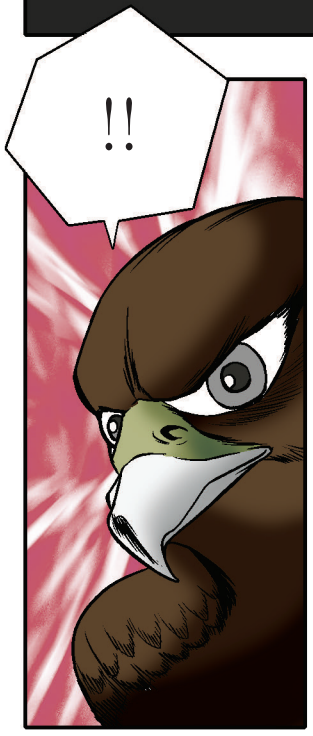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35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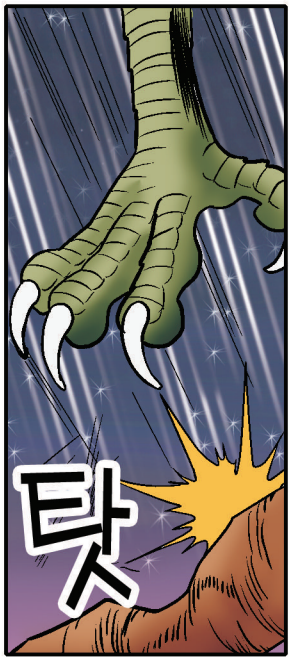



헉!
헉헉!


헉헉!
너무 늦었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럴때 축지법이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을텐
데….


!!


탓


헉헉!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37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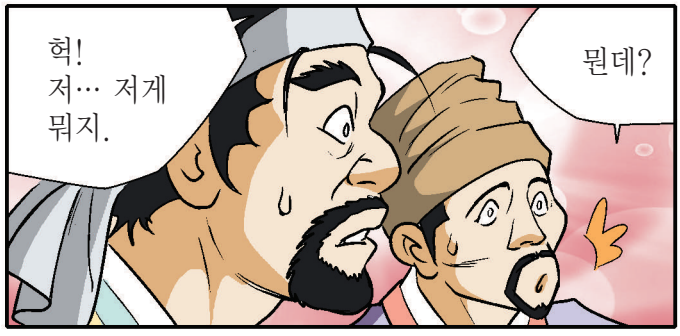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38 NO.3 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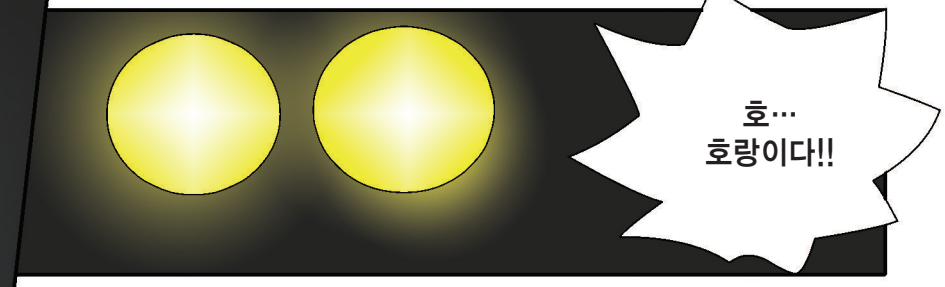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39 NO.3AdobePDF
















크르릉-
나는 부모님을 위해 쌀과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중이다. 네 어찌 그런 나를 해치려 하느냐?
해치려거든 쌀과 고기를 가지고 가 부모님께 대접해 드리고 난 뒤 나를 잡아 먹거라!
……!!
호랑이는 영물이라고 들었다!! 나 도시복의 소원을 들어다오!!
크르…
꿀꺽!


!
와!
호랑이가 효자 도시 복의 말에 감동 됐나 보다.
……
됐습니다. 맘 변하기 전에 어서 갑시다.
이번에는 또 뭐지.
캬웅-
캬르릉…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42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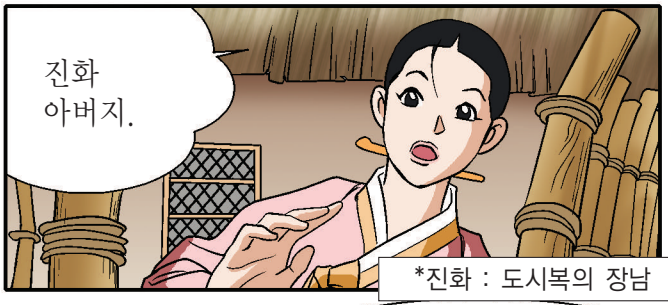

크앙앙
아까 그 호랑이가 나타나 표범과 싸우고 있어!
어흥
오! 호랑이가 표범을 쫓아 냈어!


크르릉-
우릴 따라오라고 합니다.
위험한 산길이라 우릴 보호해 주려나 봐요.
말도안돼 어떻게 이런일이….


호랑이 안내로 무사히 마을까지 왔네요.
그러게.


고마워~ 호랑아.


시복이 효심 덕분에 우리도 무사히 왔군.
허허허! 이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


진화 아버지.

*진화 : 도시복의 장남


너무 늦었구려. 어서 이 쌀과 고기로 저녁을 차려 드리세요.
어머! 당신이 저녁때 고기를 갖다놓지 않았나요?


고기를 갖다놓다니?
방에 있는데 마당에서 툭- 하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나가 봤더니 고기반찬 꾸러미가 있던데요?


저는 당신이 와서 고기 반찬 꾸러미를 내려놓고 다시 볼일 보러 나간 줄 알았죠.


그… 그 꾸러미에 고기가 들어 있었단 말이오?
그래요.


맛있게 만들어 부모님께 올려 드렸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꾸러미는 우리 것이 맞던데….
그… 그럼 솔개가!!


오는 길에 솔개가 나타나서 지게뿔에 매달았던 고기 꾸러미를 훔쳐 가길래 배가 고파 그런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천장에 돌아가 다시 고기를 사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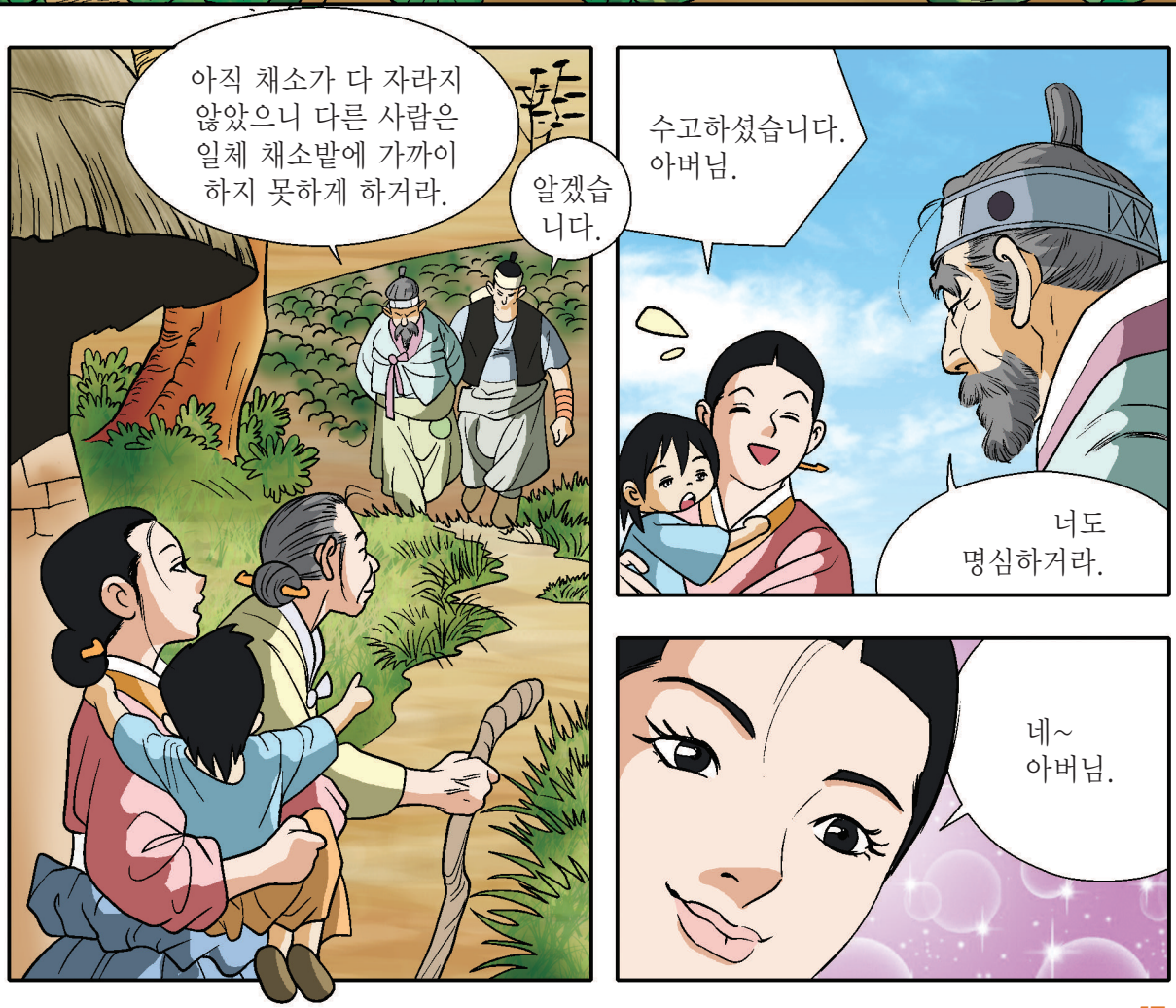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46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47 NO.3 Adobe PDF

제 3 화 채소밭 사건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48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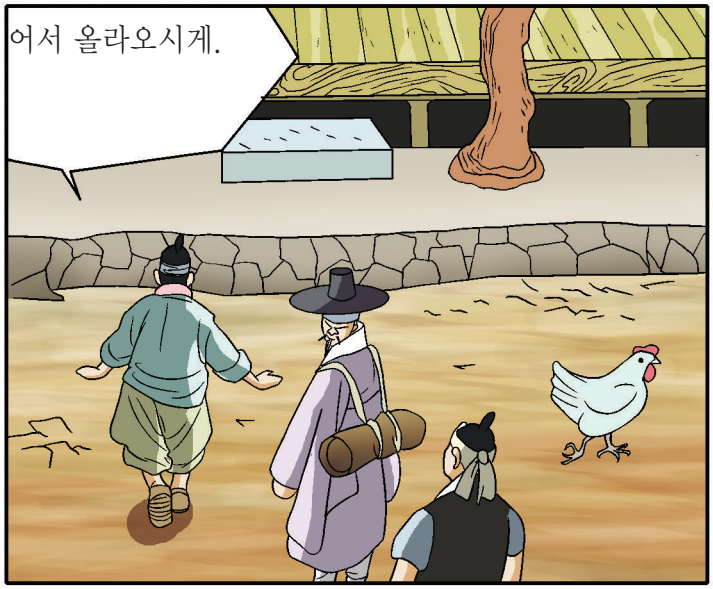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49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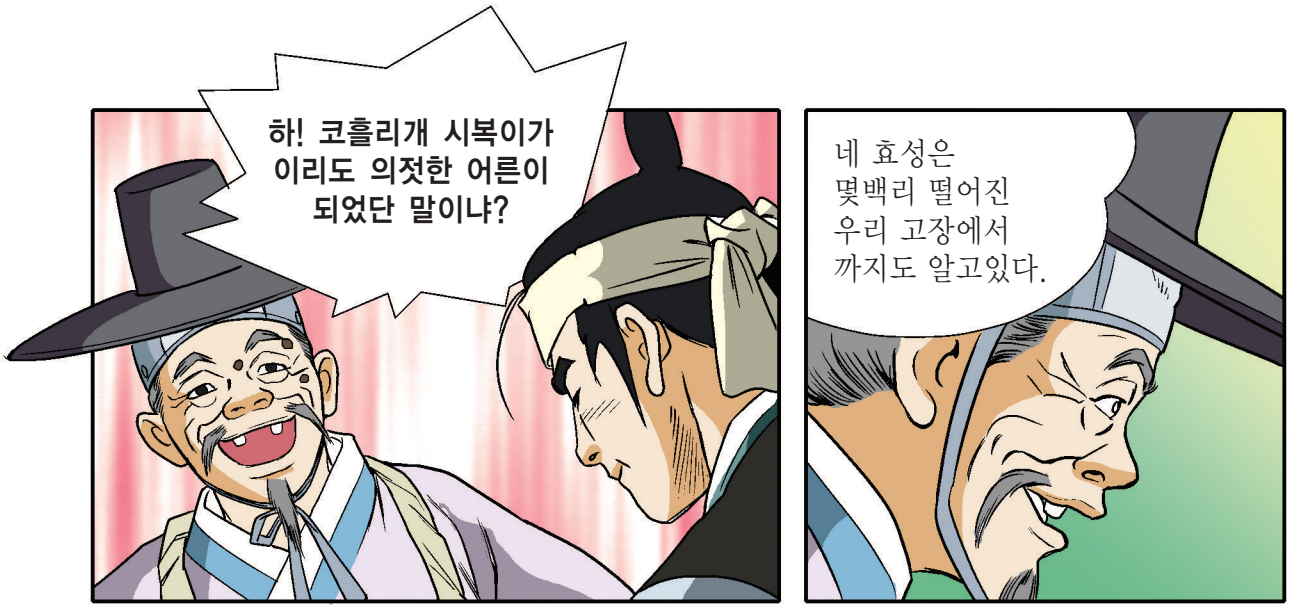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50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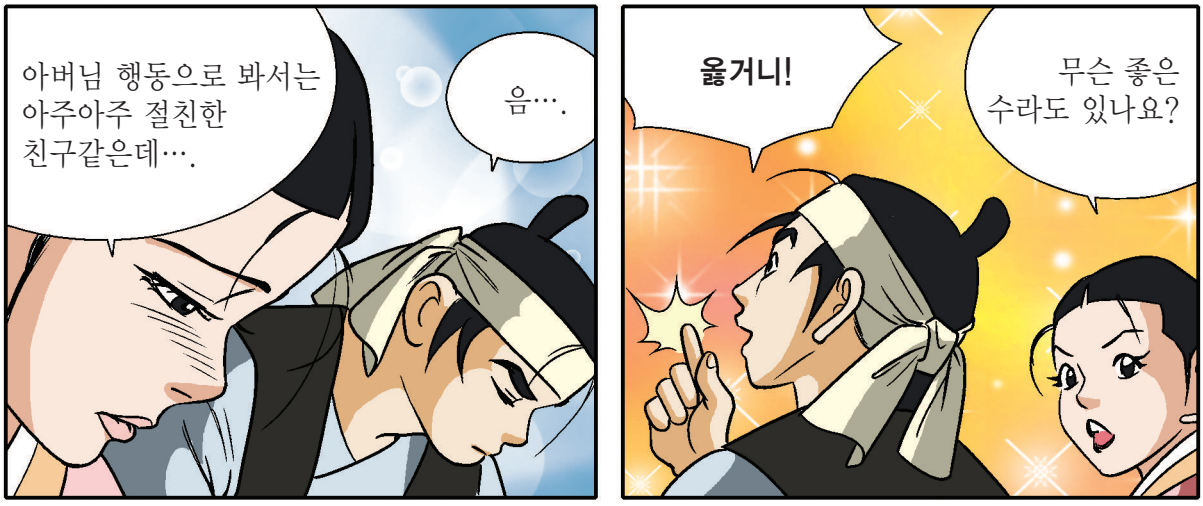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51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52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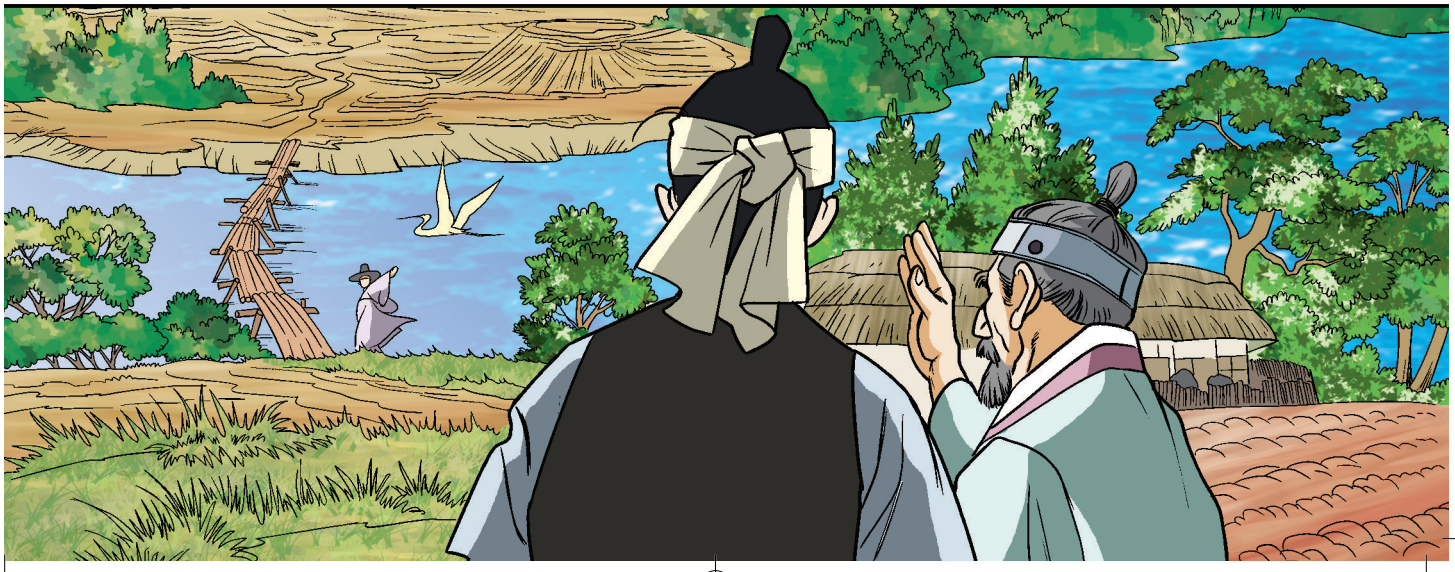
도시북본문 2011.8.4 3:27PM 페이지53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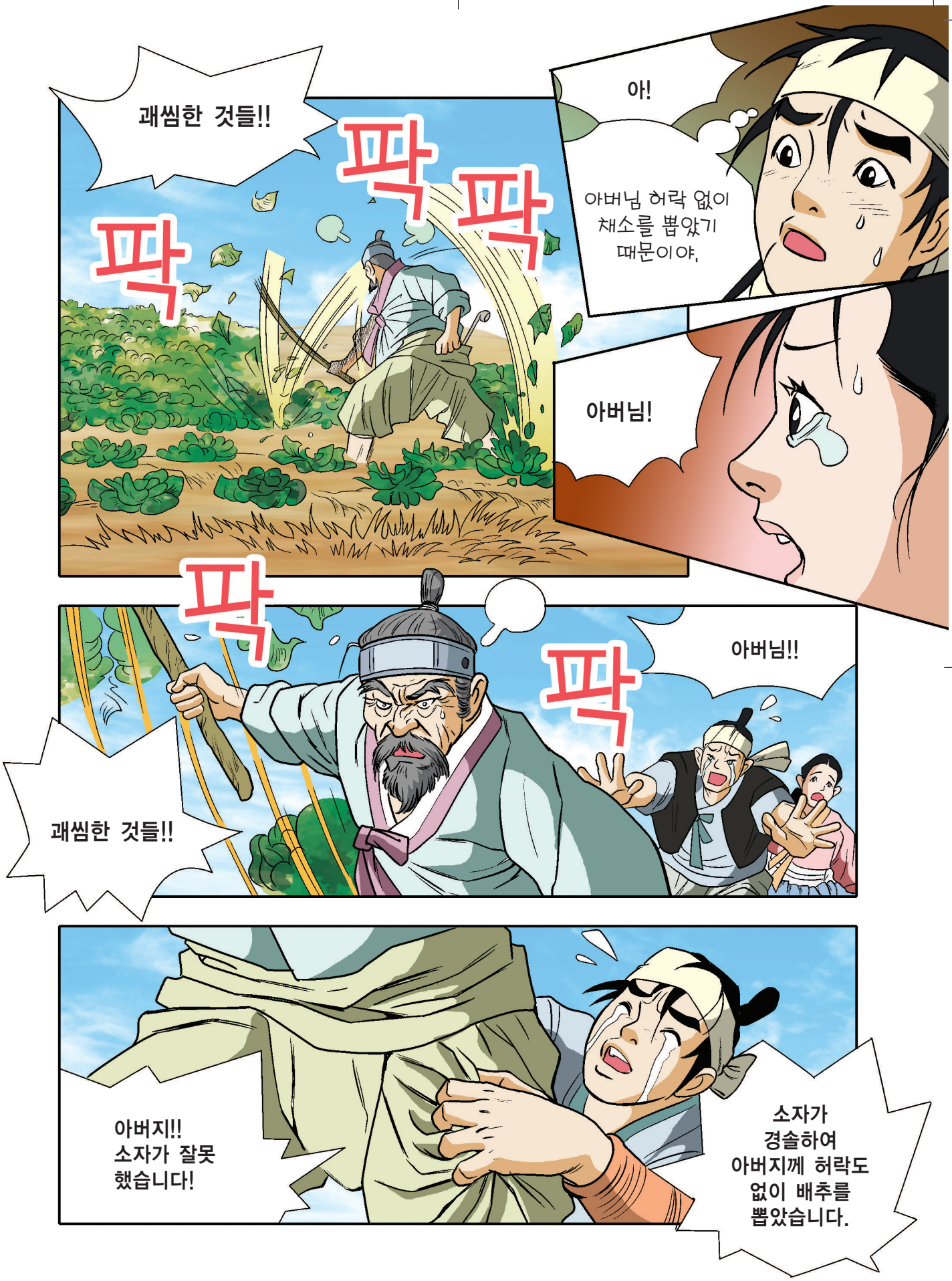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54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55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56 NO.3 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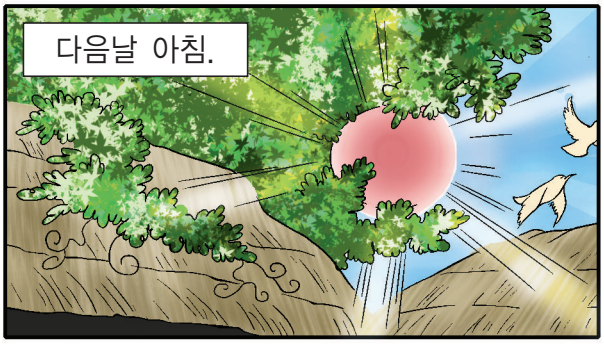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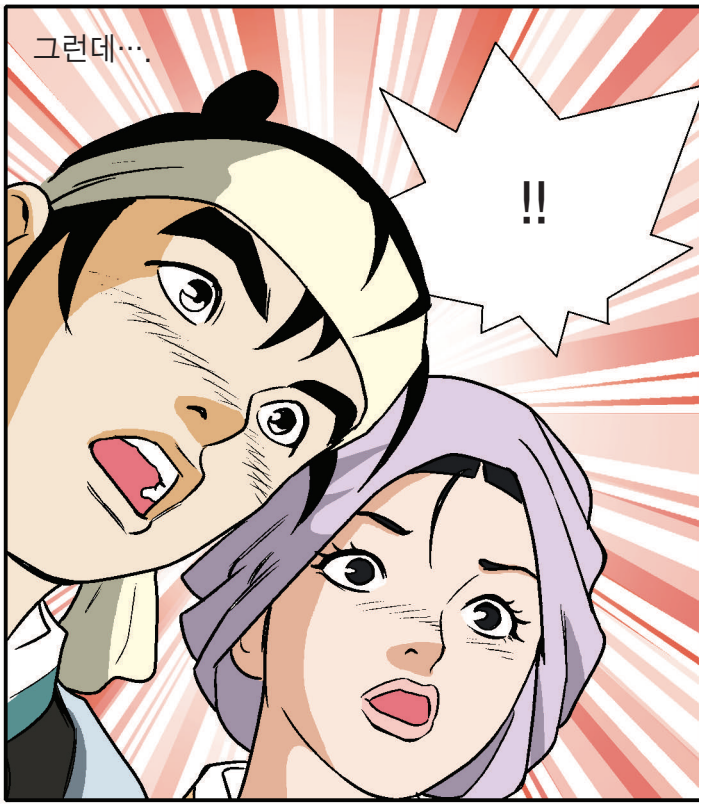



으흑흑!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승낙없이
마음대로 한 것은
큰 잘못이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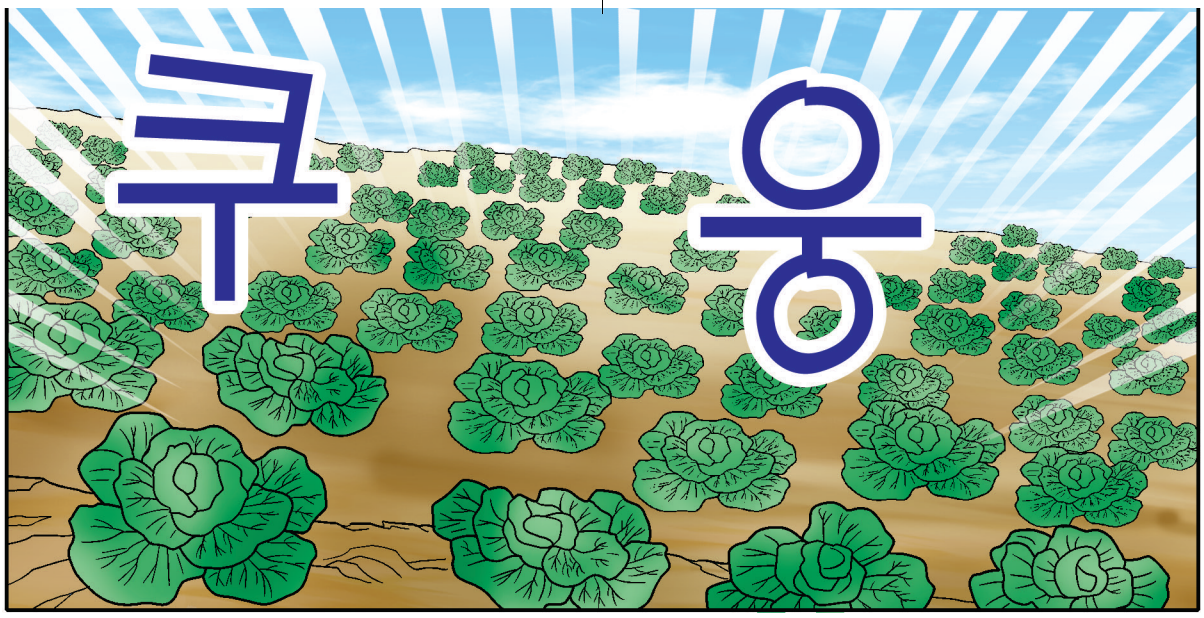

아내는 밤새 울었다.
여보-
그만 진정해요.
다음부터는 꼭
여쭙고 실행하면
되지 않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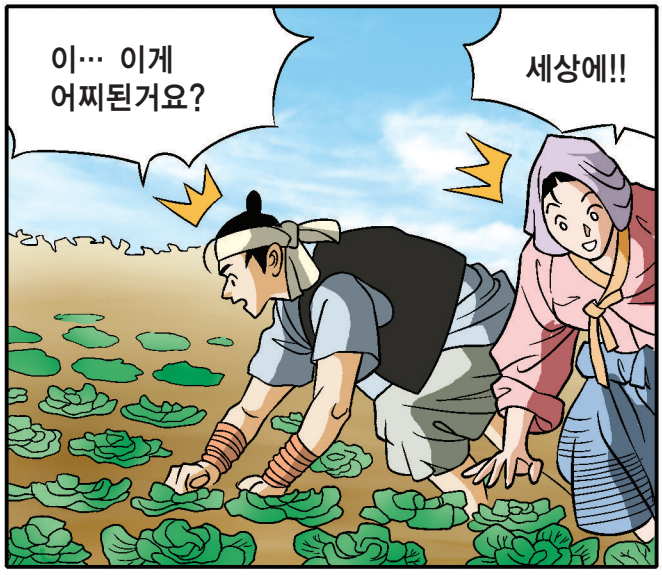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


아버지 명대로 나는 채소밭을
갈아 엎기위해 텃밭으로 갔다.
저도
도울게요.


그런데….
!!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58 NO.3 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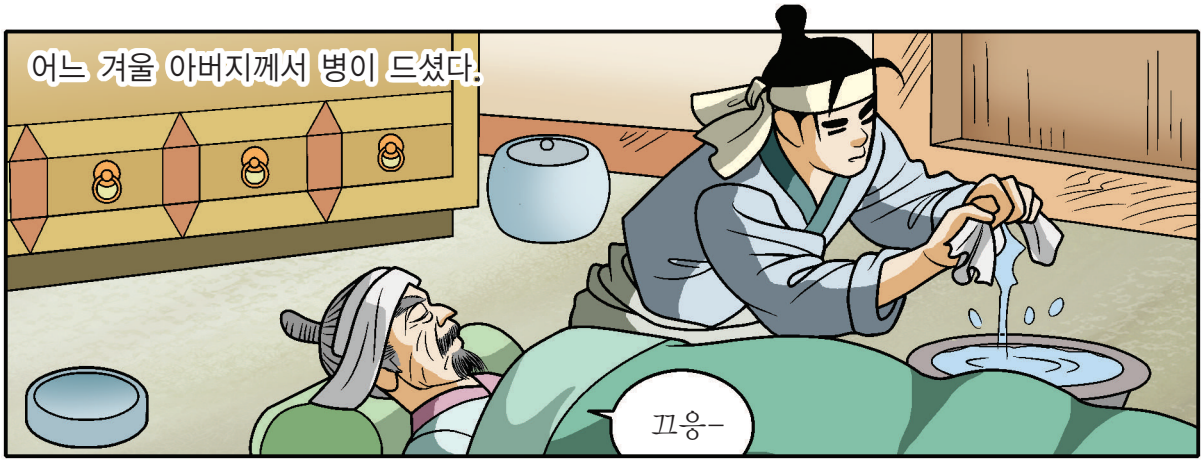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59 NO.3AdobePDF

제 4 화
꿩고기로 고친 부친의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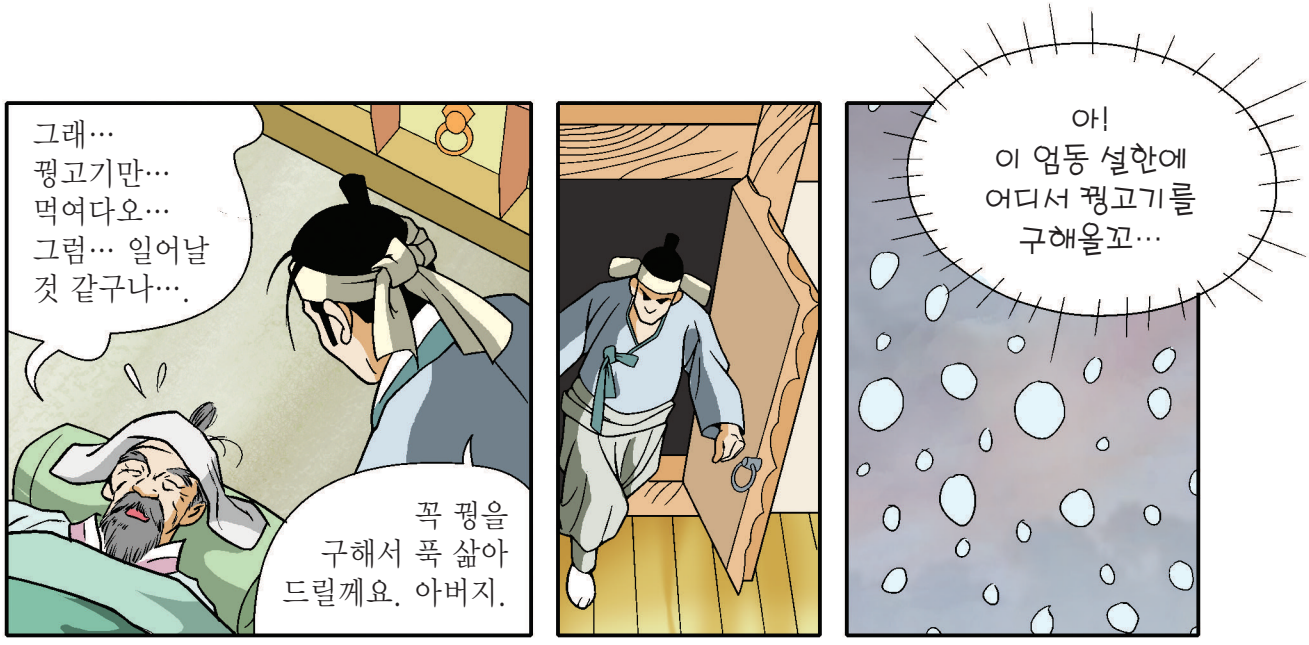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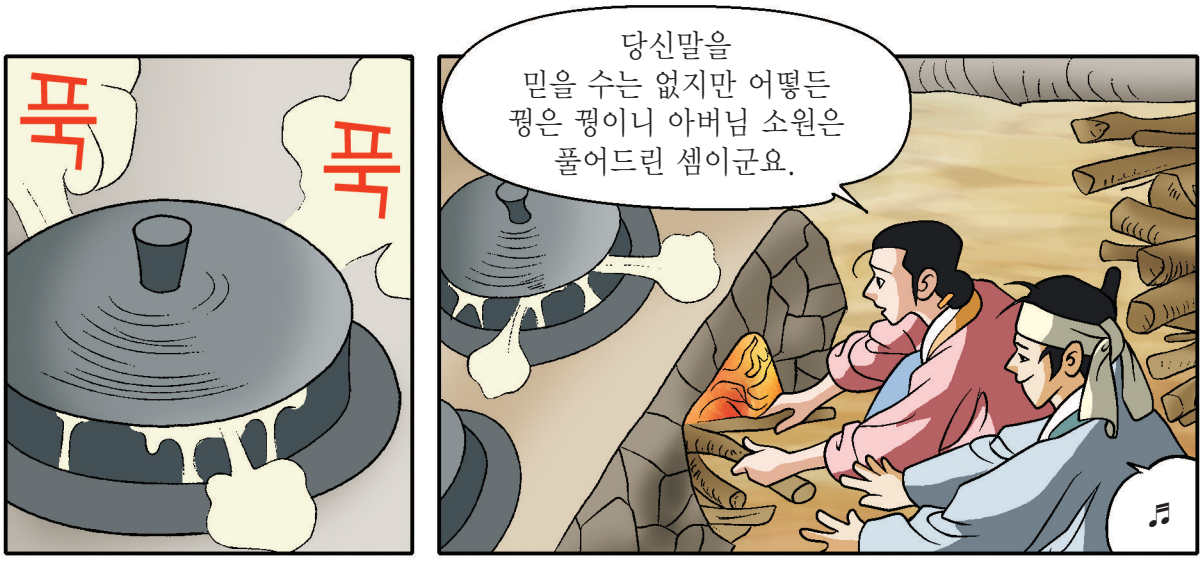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60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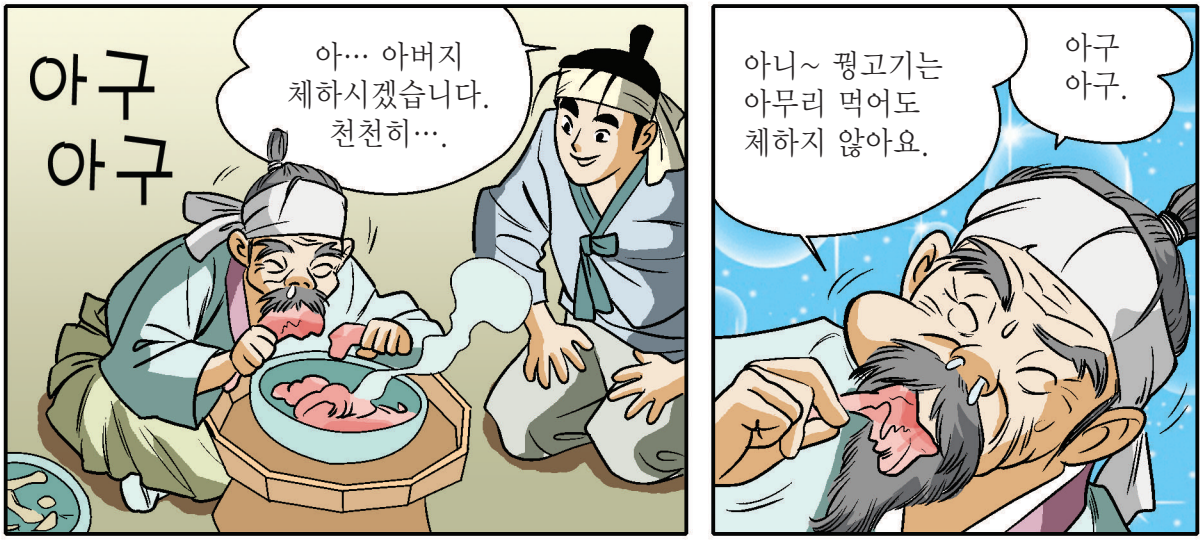



쉬이잉
간절히 기원하고나니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가
떨여져 내렸다.
?
?!!
툭
꿩이잖아!!
여보!
어서나와봐요.
?
꿩은
어디서
난 거예요?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62 NO.3 AdobePDF



아버지가 소원 하시던 꿩고기는 이렇게 하늘의 도움으로 요리해 드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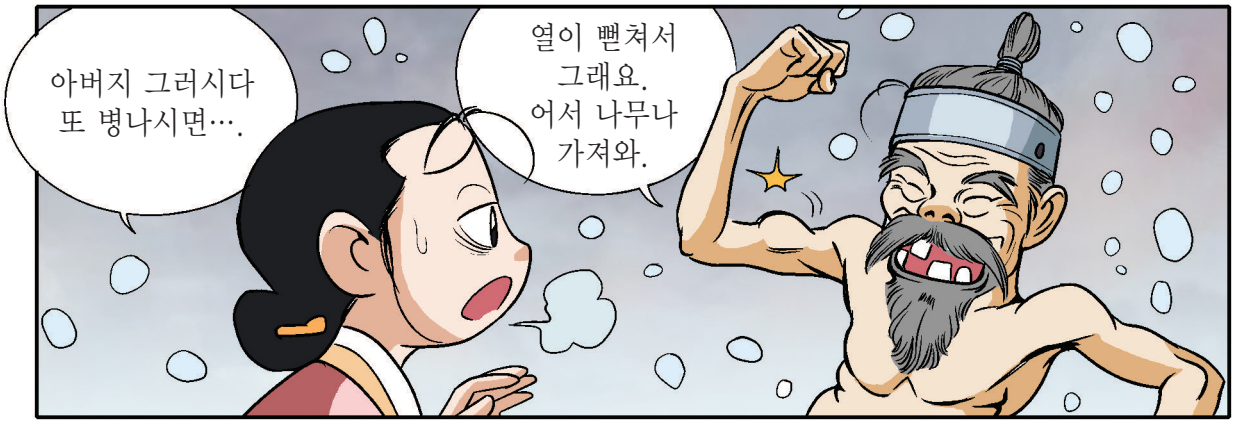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63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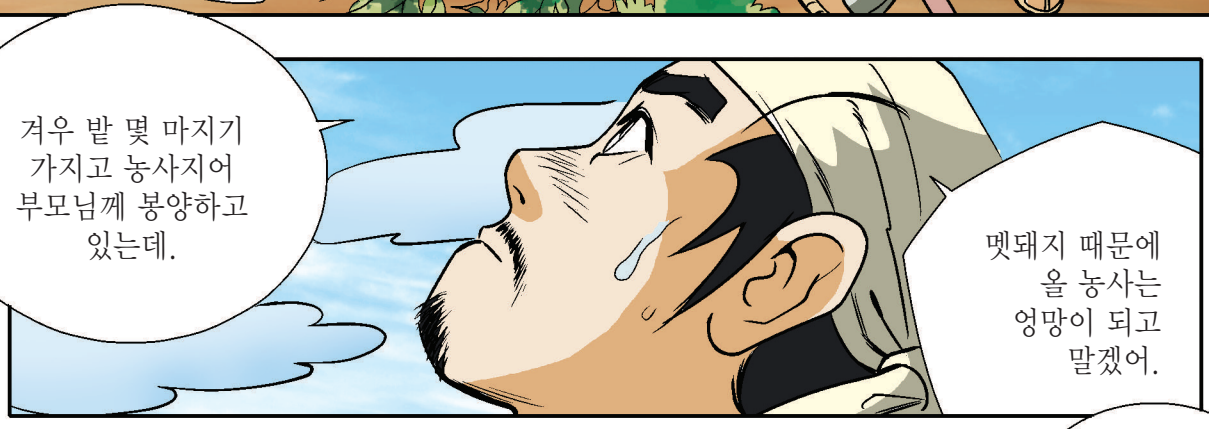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64 NO.3 Adobe PDF

제 5 화
농사를 도와준 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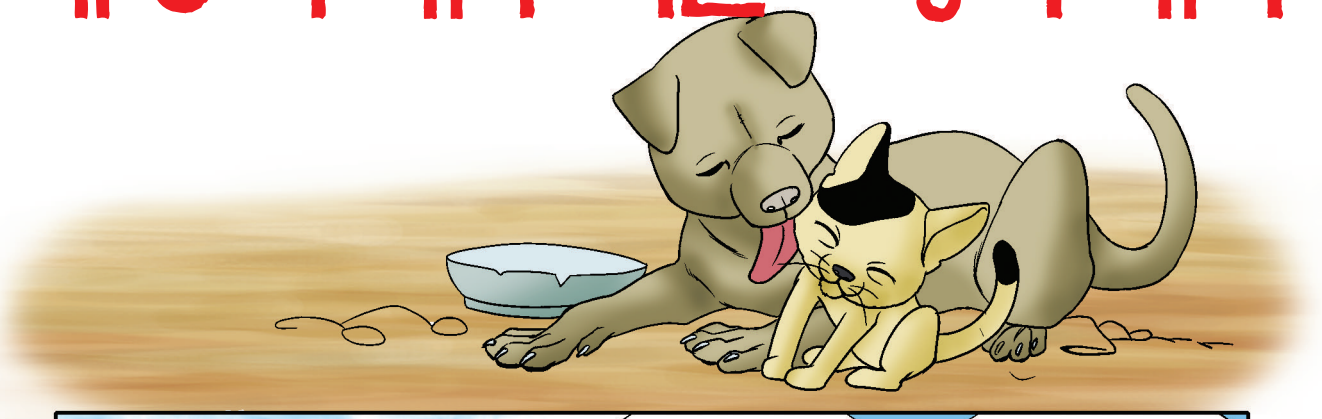

짠~
크크크… 우리의 주식은 감자!
감자가 좋아요!!
도시복 씨 고마워용~
이 멧돼지 새끼들!! 오늘이 네놈들 제삿날이다!!
크
앙
훔쳐먹을게 없어서 효자 도시복의 농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으아아~
호랑이닷!!
도망가자!

도시복본문 2011.8.4 3:27 PM 페이지66 NO.3 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67 NO.3AdobePDF

제 6 화 개가 키운 고양이 새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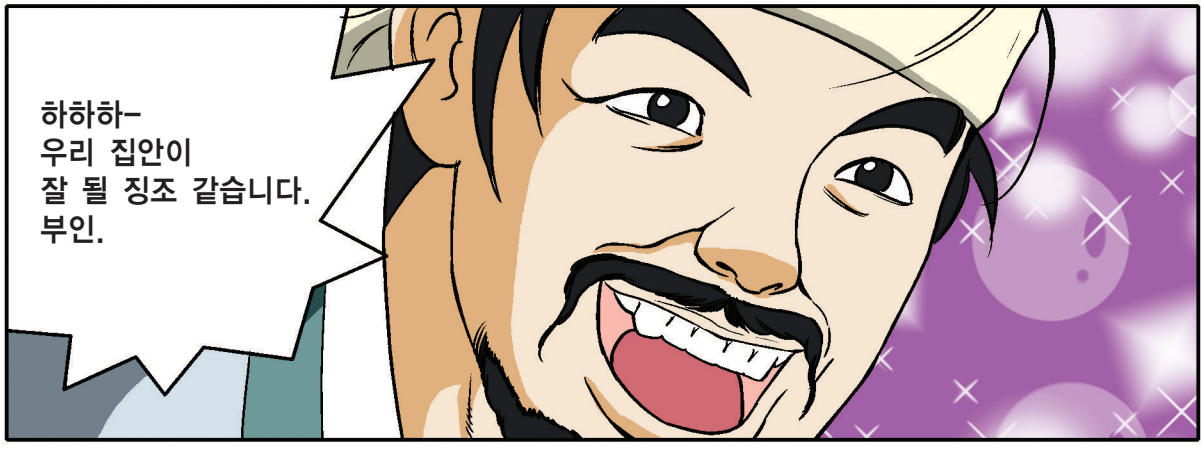

그런데 어느날 암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두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여보-
고양이 어미가 새끼만 놔두고 나가더니 나타나지 않아요.
벌써 이틀이 넘었는데요? 낑낑거리며 엄마 찾는데 안타까워 못 보겠어요.
어미 젖대신 누룽지 물을 줘보는데 먹지도 않네요.
그러다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좀 기다려 봅시다. 설마 새끼를 두고 멀리 나갔겠소?
허~ 그럼 안되지. 내가 국물이라도 먹여 볼테니 부모님 드리고 남은 고깃국물 좀 줘봐요.
응?
나비야~ 어디있니?

도시복본문 2011.8.4 3:27PM 페이지69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70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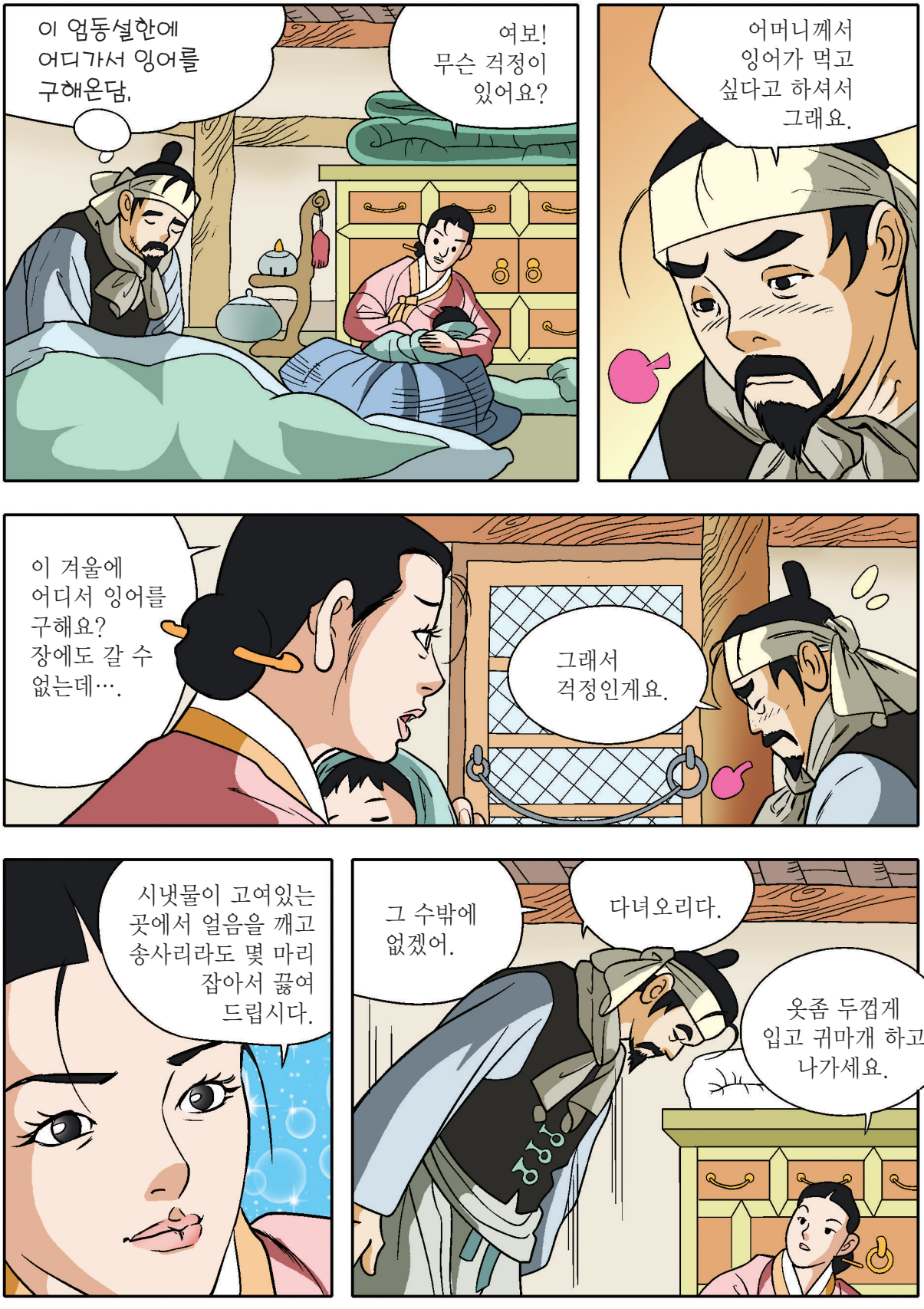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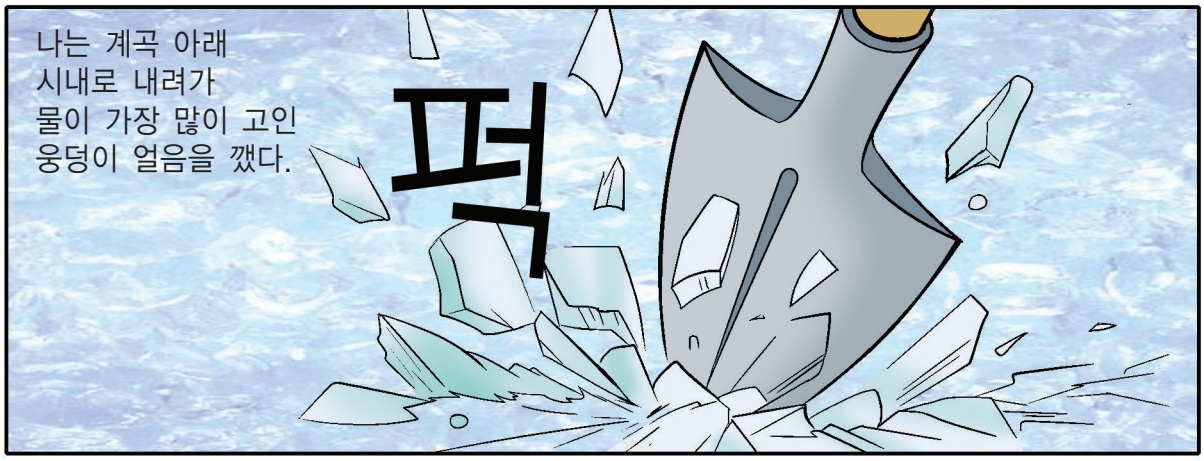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71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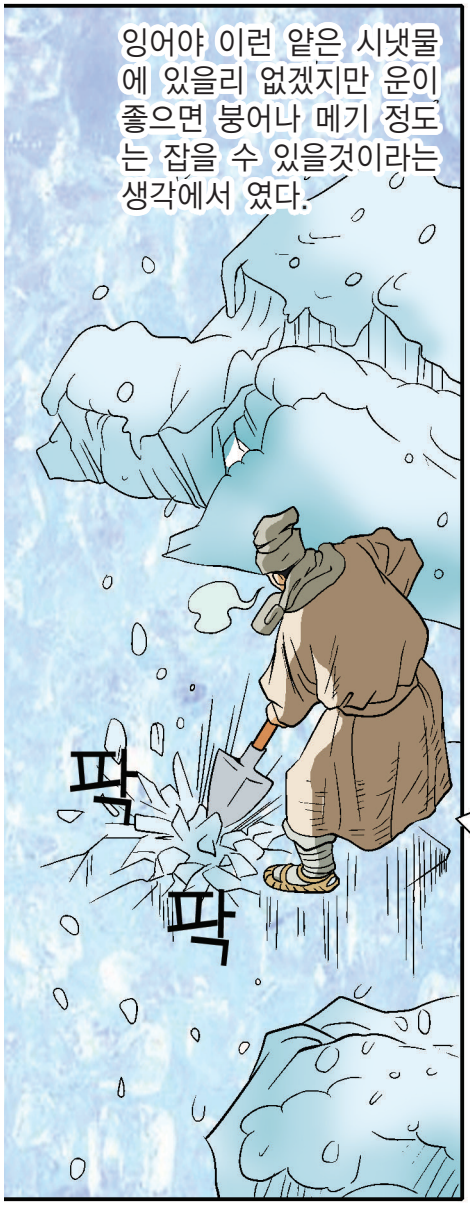
제 7 화 얼음 구멍에서 나온 잉어




이 엄동설한에 어디가서 잉어를 구해온담.
여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요.
이 겨울에 어디서 잉어를 구해요? 장에도 갈 수 없는데….
그래서 걱정인게요.
시냇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얼음을 깨고 송사리라도 몇 마리 잡아서 끓여 드립시다.
그 수밖에 없겠어.
다녀오리다.
옷좀 두껍게 입고 귀마개 하고 나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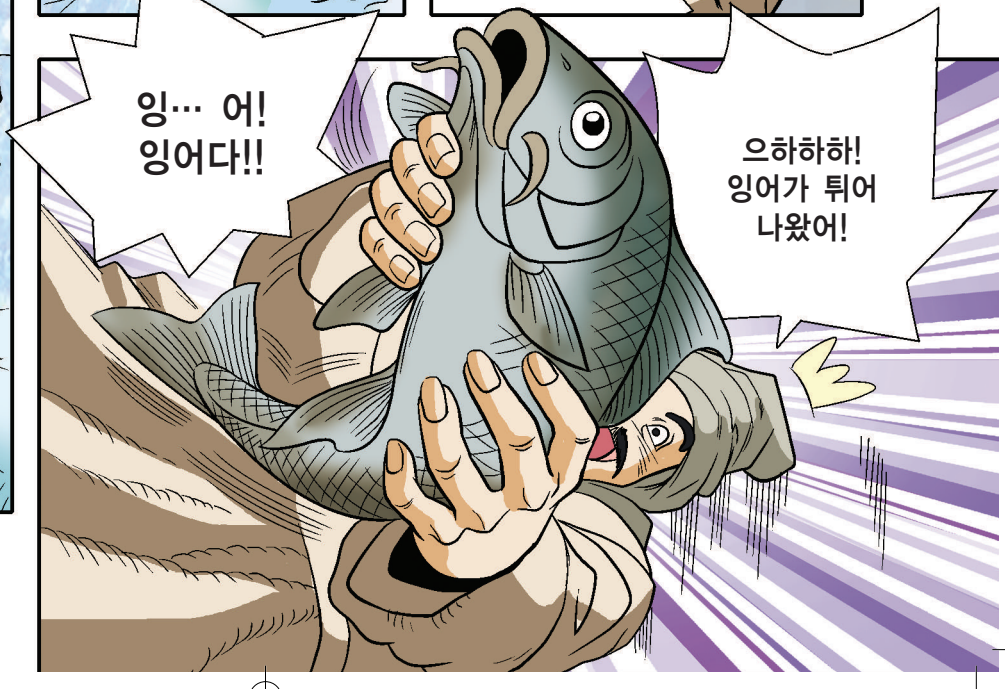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73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74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75 NO.3AdobePDF

제 8 화
저절로 들어온 노루





이른봄, 어느날 부모님은 불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셨다.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76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77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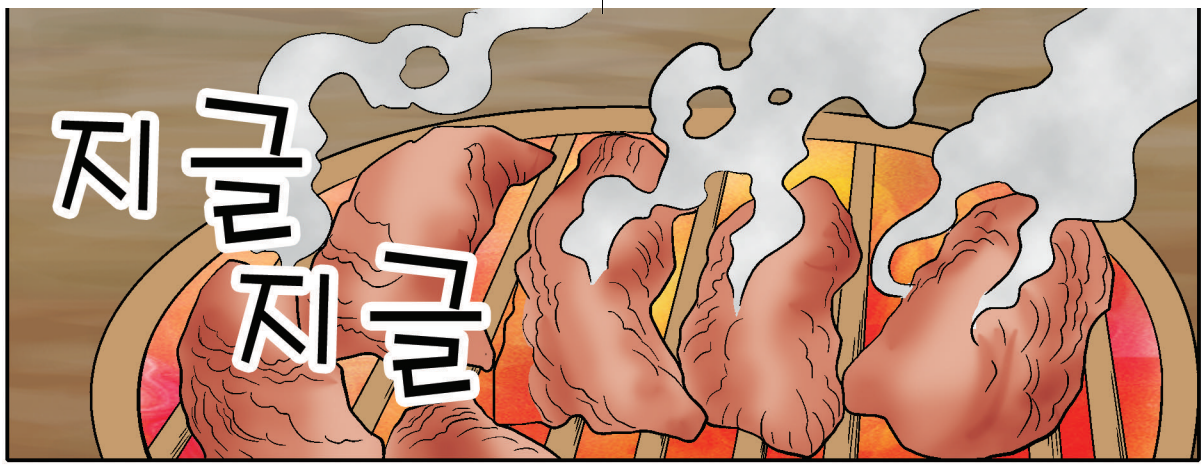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78 NO.3 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79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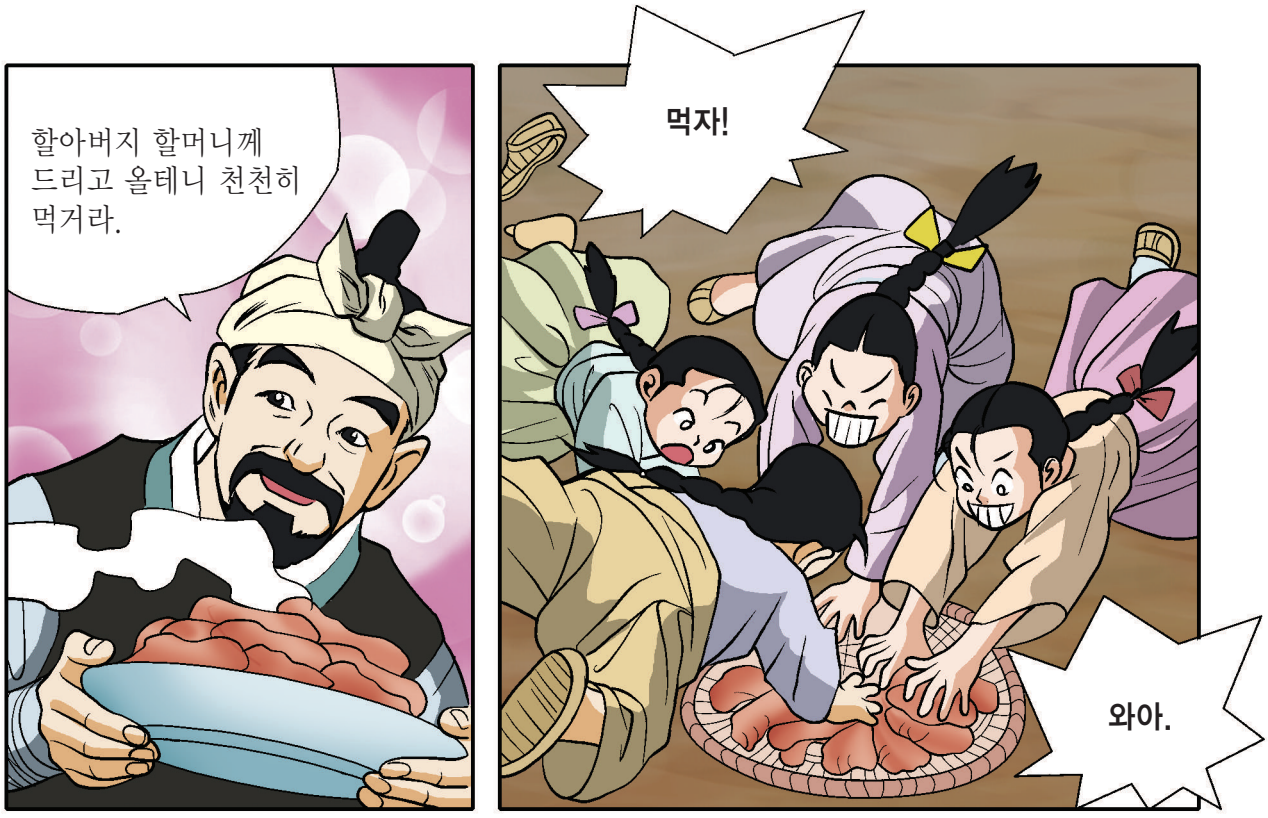



지글
지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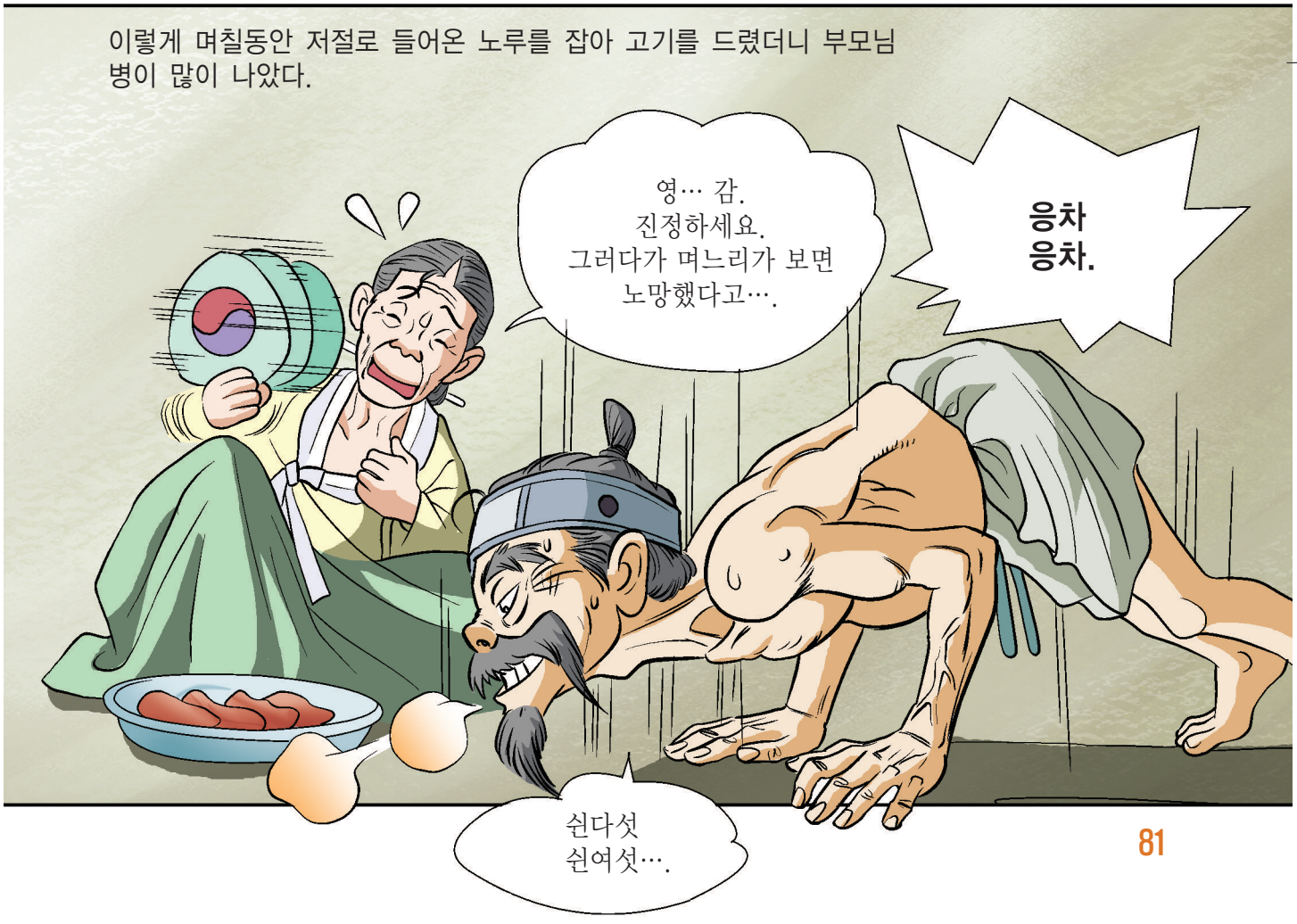

꿀꺽.
아버지 다 익었어.
먹고싶당.
꿀꺽.
이놈들아! 고기가 익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너희들이 먹는 거라고 늘 말했잖느냐!!
손 치우지 못해!!
조금만 참자. 꿀꺽.


꿀꺽.
아~ 고기 냄새가 죽여주는구나~
얘들이 대충 구워서 가져오지 않고 뭘하나.

도시복본문 2011.8.4 3:28 PM 페이지81 NO.3 Adobe PDF



이렇게 며칠동안 저절로 들어온 노루를 잡아 고기를 드렸더니 부모님 병이 많이 나았다.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82 NO.3AdobePDF

제 9 화
동짓날에 수박을 구하다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83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84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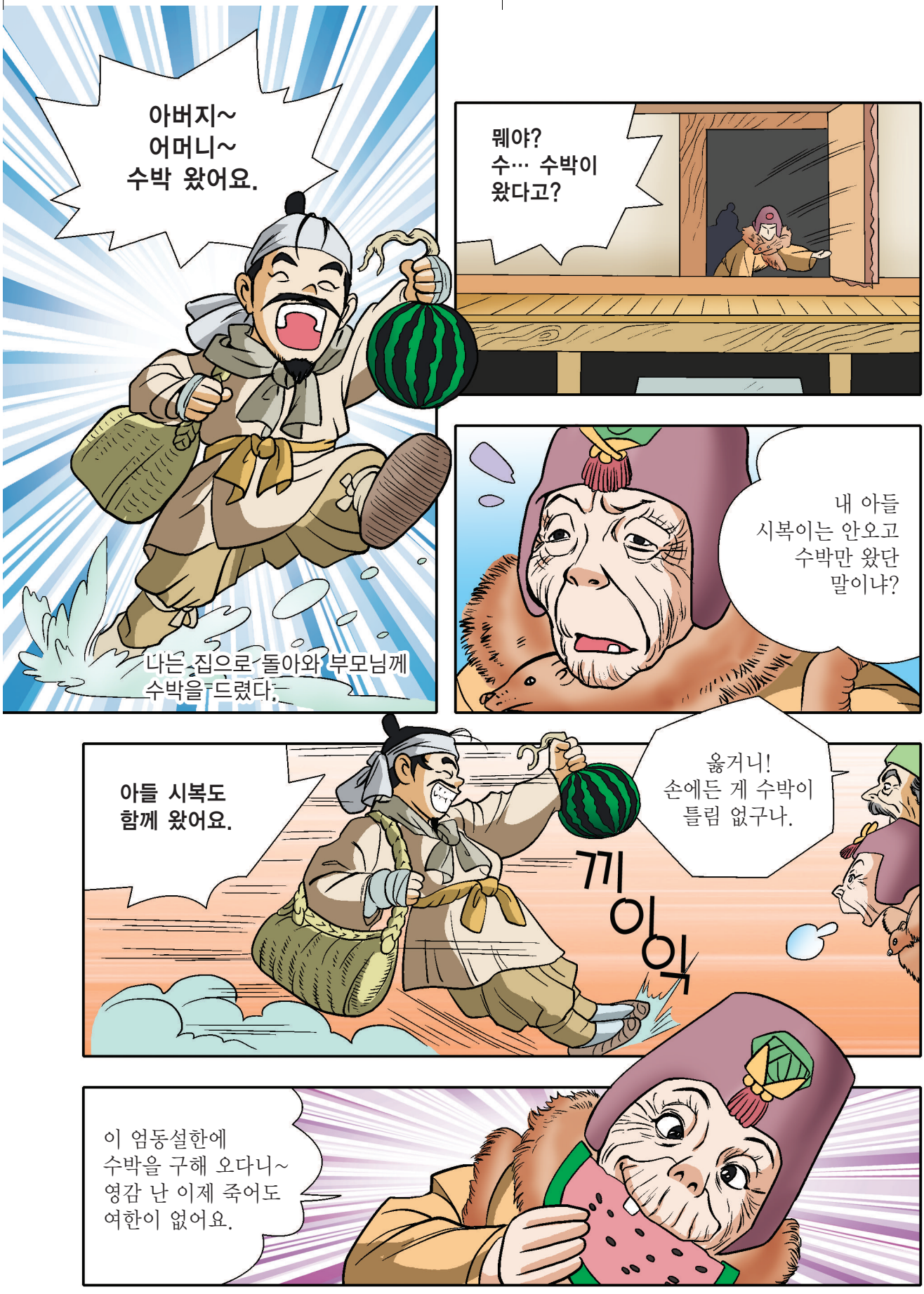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85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86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87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88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89 NO.3Adobe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90 NO.3Ado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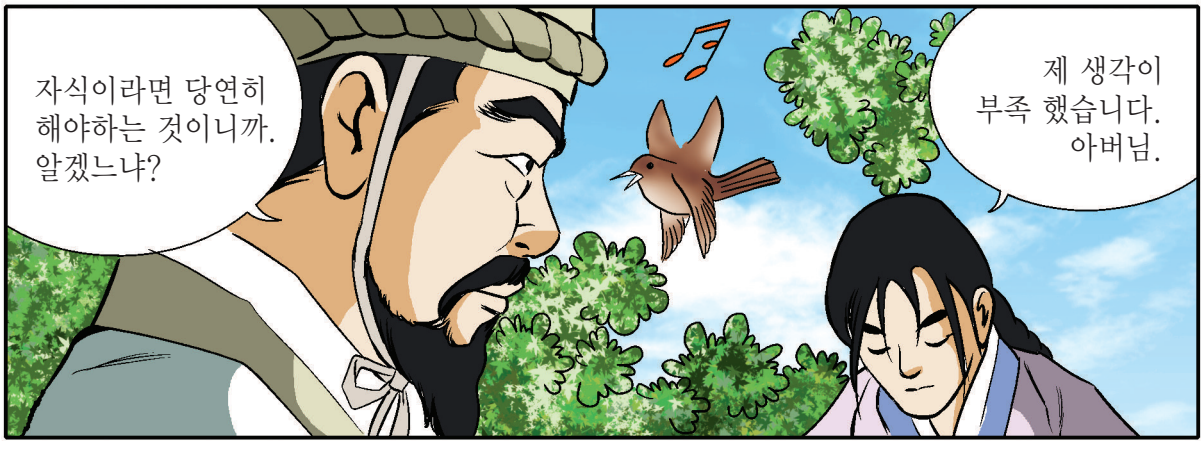







진화 네가
고생이 많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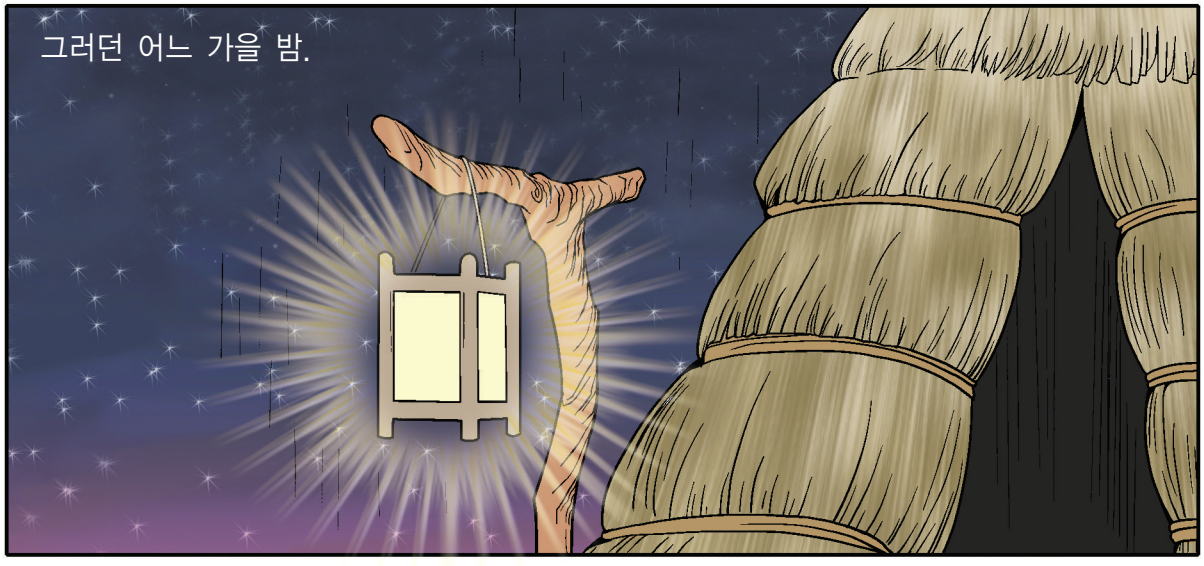

아버님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부모님 시묘살이는
효로서 행하는 것이니
고생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촤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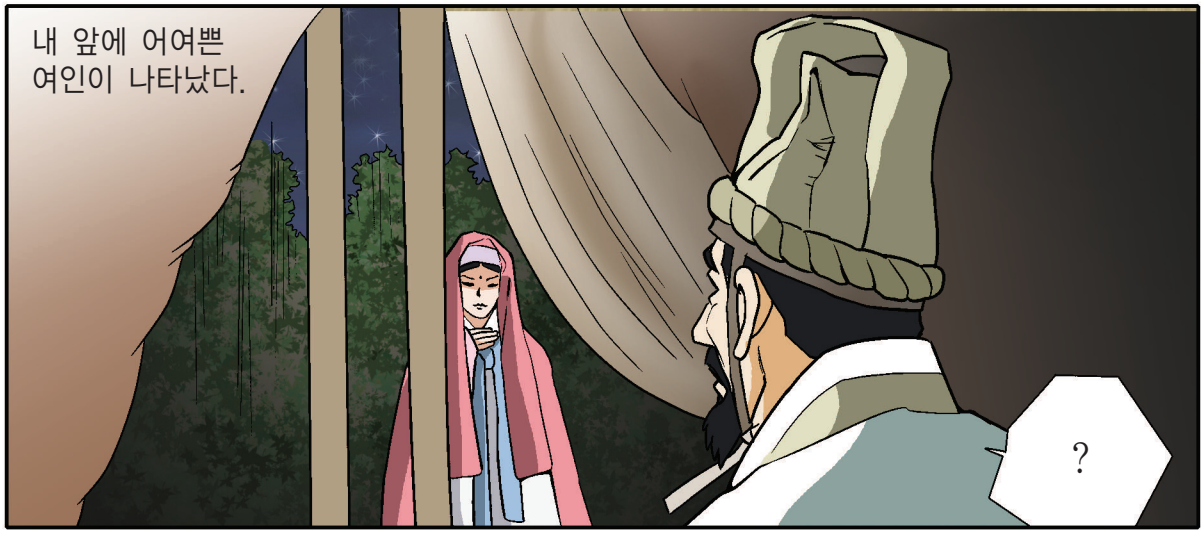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니까.
알겠느냐?
제 생각이
부족 했습니다.
아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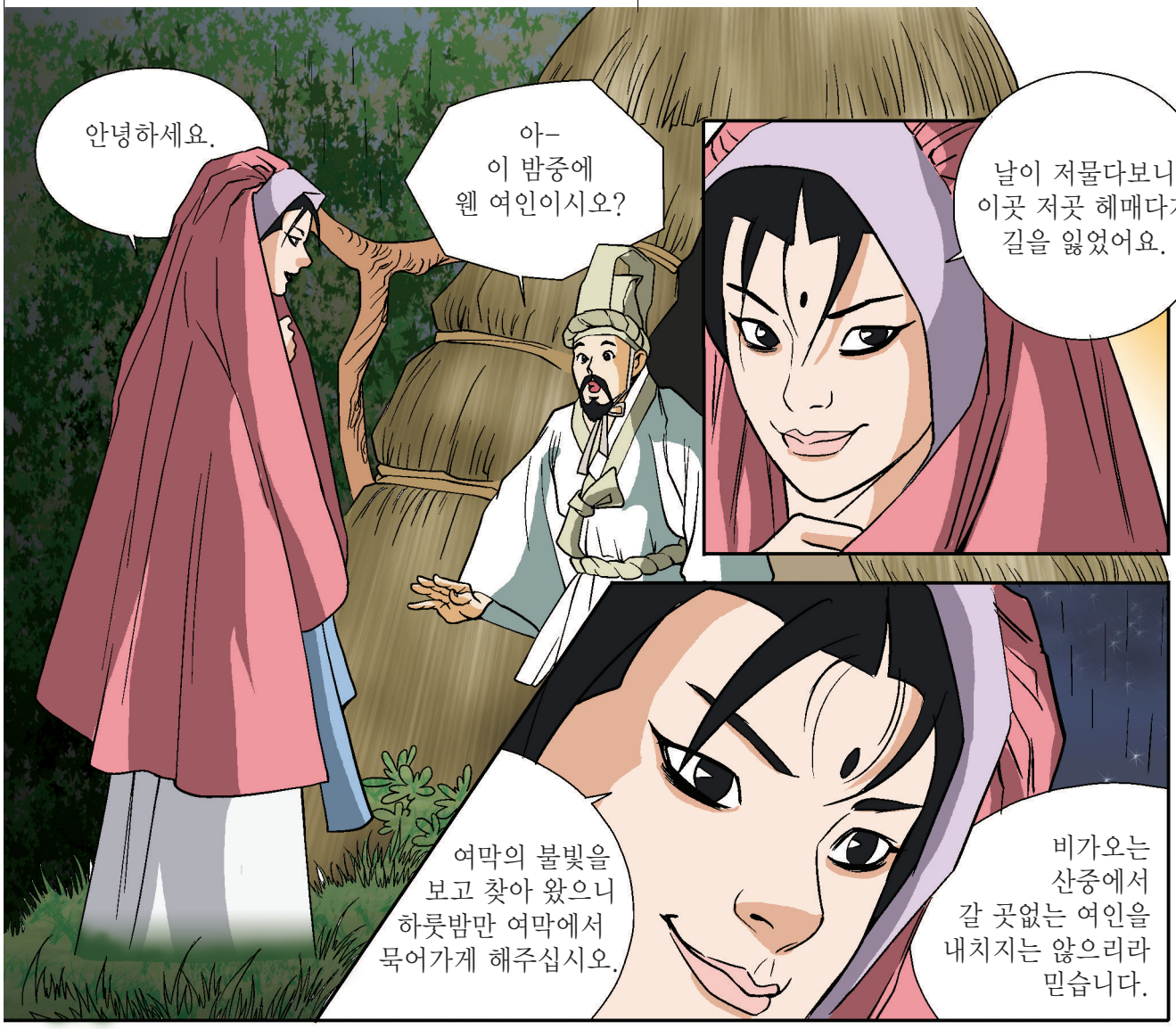

내가 물 걱정을 하던 어느날
여막 아래 바위 밑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뭐야?
물이 나오고
있잖은가!


허!
하늘이 또 이 불효자를
위해 물을 주시는구나!!


저 자식이 또 나타났어.
어디 그뿐인가!저녁이면 늑대나 삵괭이 표범 등이 나타났지만 그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여막을 지켜주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밤.


내 앞에 어여쁜 여인이 나타났다.
?


안녕하세요.
아-
이 밤중에
웬 여인이시오?
날이 저물다보니
이곳 저곳 헤매다가
길을 잃었어요.
여막의 불빛을
보고 찾아 왔으니
하룻밤만 여막에서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비가오는
산중에서
갈 곳없는 여인을
내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음음-
그것 참 입장
난처하군…,


저… '남녀가
7세면 부동석' 이라
가족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럼 이 나약한
여인을 짐승 밥이
되도록 내치시겠
다는 건가요?
이크!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94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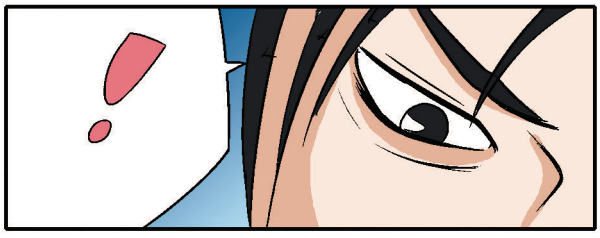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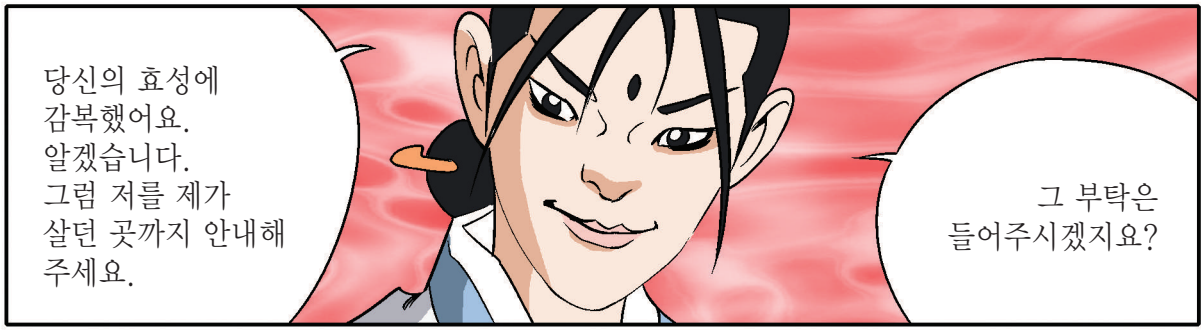





이 곳은 아버님 무덤을 지키고 아버님 영혼을 위로하는 곳입니다.
제발! 저를 불효자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이리도 아름답고 예쁜 귀부인께서 하찮은 저를 불효자로 만들려 하십니까?


!


당신의 효성에 감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를 제가 살던 곳까지 안내해 주세요.
그 부탁은 들어주시겠지요?


그… 그럼요 천리길이라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습으로 봐서
이 동네에서 가장 잘사는
기와집이 이 여인집일 거야.
이리오너라!!
앗!
안돼요.


?
으흐흑!
왜… 왜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예? 망…명 인사!!
흐흑!
저는 망명인사라 다른사람의 집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럼 귀… 신?!
헉!
으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고 했어!
흑
그… 그러니 저의 집으로 안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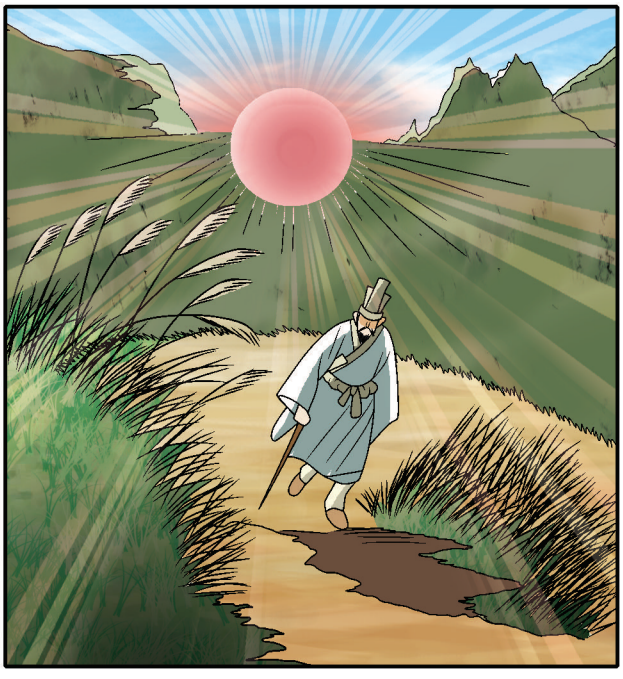

이리오너라!!
음음… 생각보다 가난한 집에서 살고있었군.
제가 시집 가기전에 살던 친정집이에요.
흑- 속으로 생각한 말까지 알고 있다니…,
아! 그렇습니까?
누구… 신지요?
가만! 너… 너는 점순이 아니냐?
엄마…,
여… 여보 염감! 우… 우리 점순이가 왔어요.
뭐야? 내 딸 점순이가 왔다고!!
덜컥


아니! 며칠 전에 시댁에서 죽었다는 부고를 받았는데… 그럼 살아 났다는 건가?
내 딸 점순아!!
으흑! 우리 점순이 어서 들어오너라.
아! 아버지…,
시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나를 반겨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 편히 하늘 나라로 올라가자,
시댁에서는 불행 했지만 부모님께는 사랑 받는 딸이었어,
어머니 아버지 만수무강 하세요.
스스스
어서들어…?
점순아!

도시복본문 2011.8.4 3:28 PM 페이지100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 PM 페이지101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102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103 NO.3 Adobe PDF




그러든 어느날 밤
오늘밤은 왜 호랑이가 오지 않지?
분명히 올 시간이 지났는데,
쩌르르르
?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105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106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107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108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109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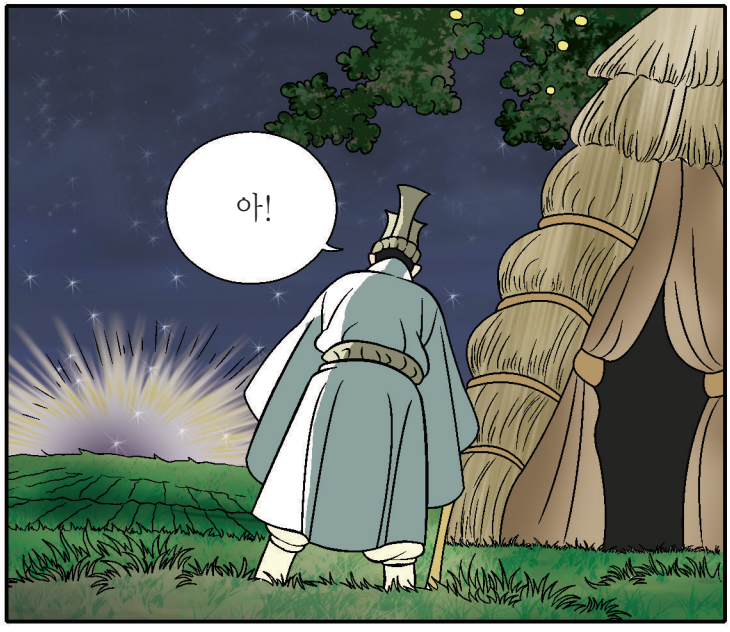









어?
내가 나타나니까
가버리네.
스스스스


아!


저 지네도 내가
여막을 비우니까
내려와서 여막을
지켜주고 있었구나!


저런 미물들도
내 효성에 감동되어
여막을 지켜주고 있으니
더욱 노력하여
시묘살이에 빈 틈이
없게 하자!

도시복본문 2011.8.4 3:28PM 페이지111 NO.3 Adobe PDF

그 일이 일어난 뒤 부터는 더욱 정성것 아버지 묘를 지키며 여막을 비우는 일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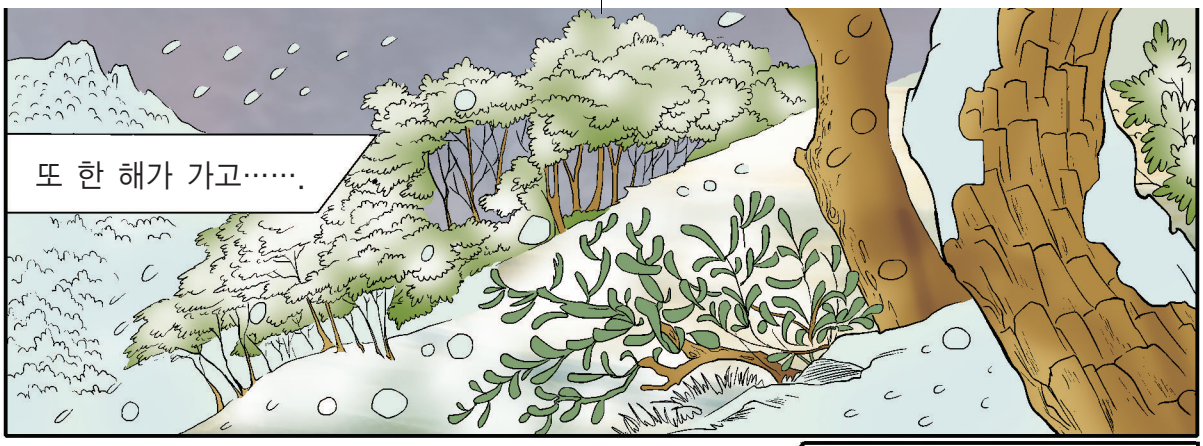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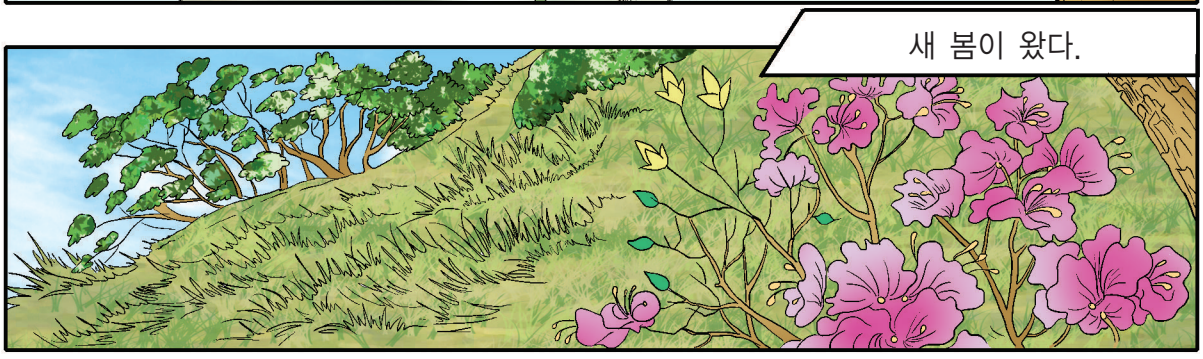









또 한 해가 가고…….


새 봄이 왔다.


어느 봄날 밤 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잠깐 여막을 비운일이 있었다.
잠깐
다녀온다는게
벌써 밤이
되었구나.


그런데…
헉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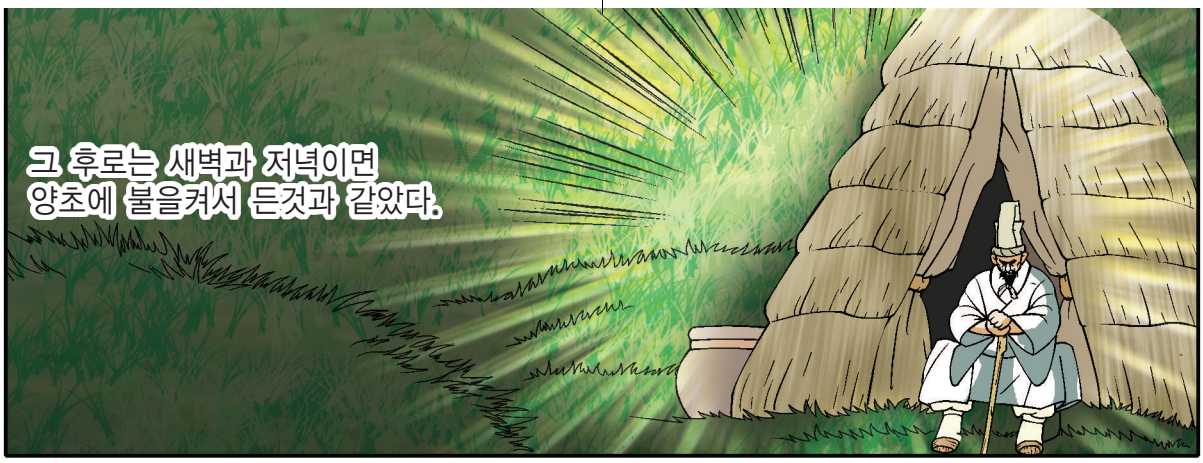

휴~ 이제
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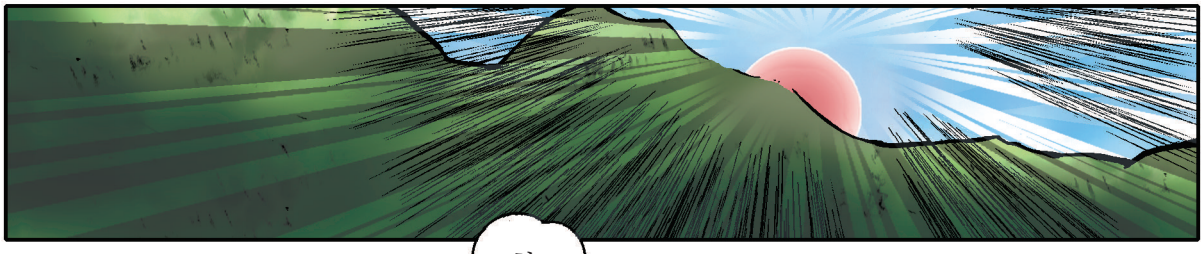

!
저건 뭐지?
뱀이잖아!
아! 이번에는 뱀이 여막을 지켜주고 있어.
아버지! 제가 또 불효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도요자가 이제야 나타났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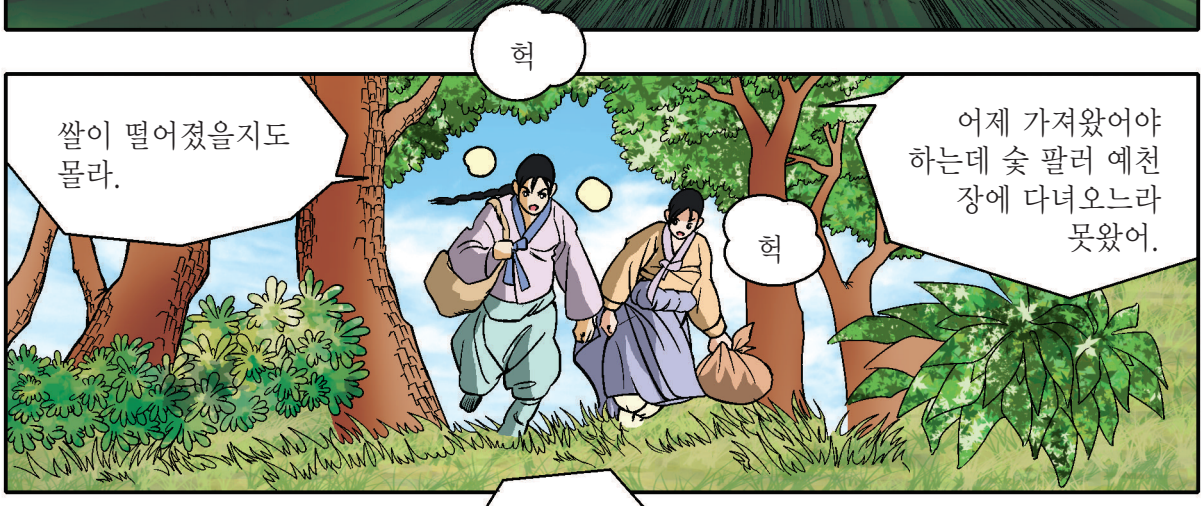

내가 돌아와
곡을하자
사라졌네,


지네 사건 이후로
조심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여막을
잠시 비우자 이번에는
뱀이 나타나 여막을
지켜주다니…,


그런데
뱀이 사라진
후에도 여막 앞이
환하게 밝네,
달 빛이 여막을
비추는 건가?
초생달인데…,


그 후로는 새벽과 저녁이면
양초에 불을켜서 든것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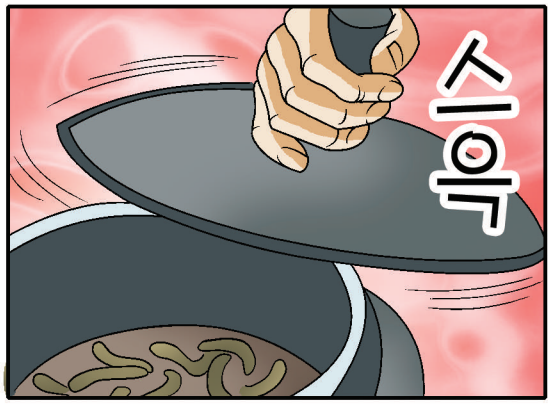

헉
쌀이 떨어졌을지도 몰라.
헉
어제 가져왔어야 하는데 숯 팔러 예천장에 다녀오느라 못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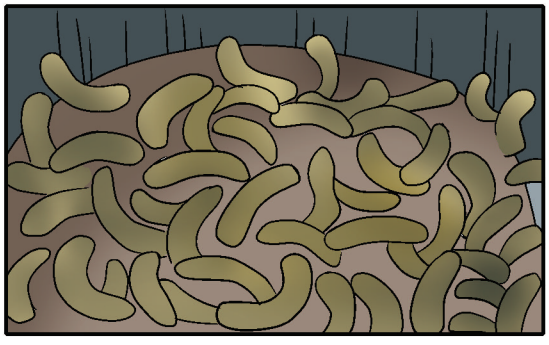

헉
어서 가자.
헉




아버지 어제 저녁은
식사 못하셨죠?
아니야~
저녁 까지는
딱 맞게 먹었다.


잠깐만 기다리셔요.
아침 맛있게 해드릴게요.


스윽




헉! 죽은
거… 머리들이
가득 들어있어!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17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 PM 페이지118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19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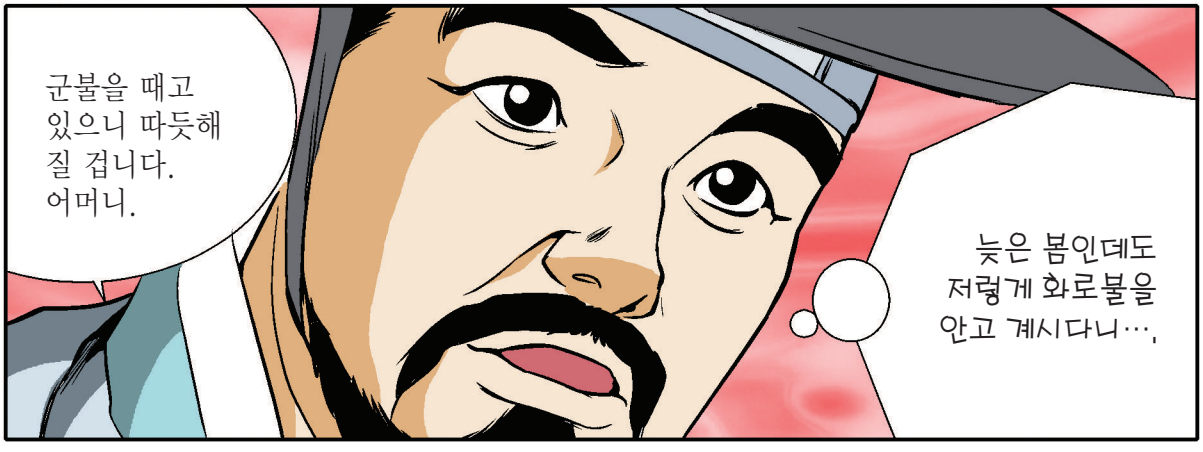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20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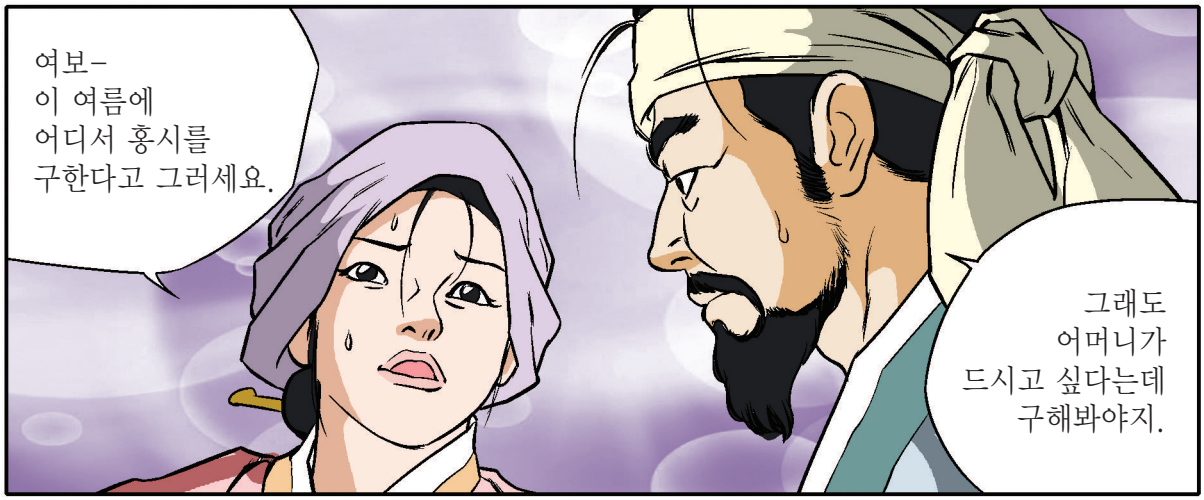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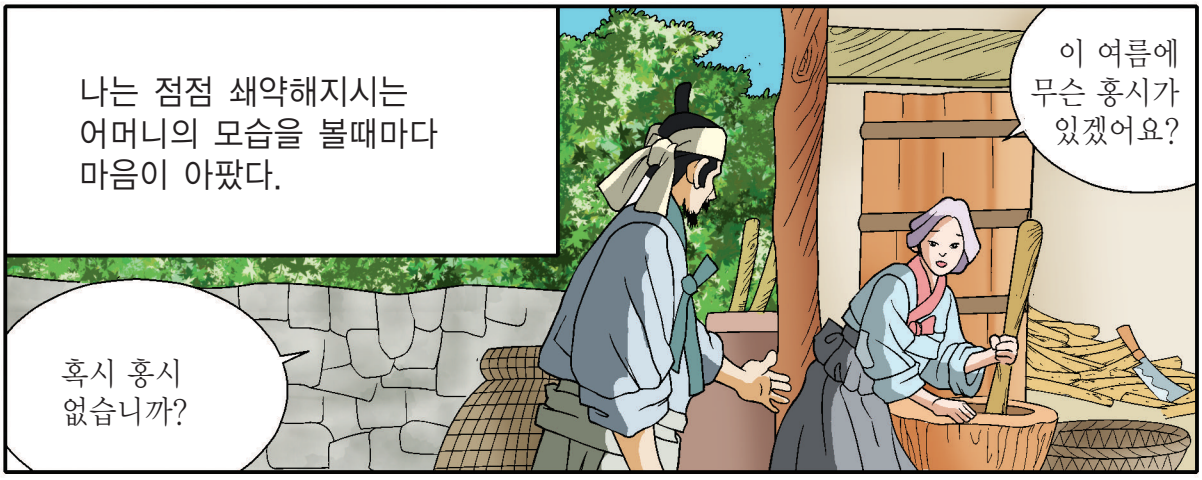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21 NO.3 Adobe PDF

제 11 화
여름철에 홍시를 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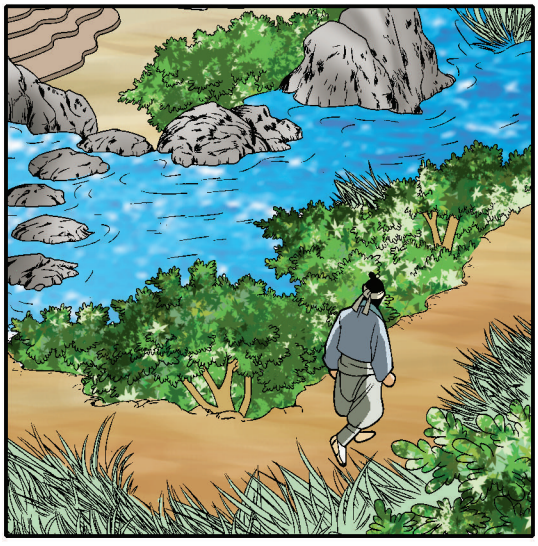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22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23 NO.3 Adobe PDF




호랑아!
어딜가는 건데?
가 보면 알아.


♬
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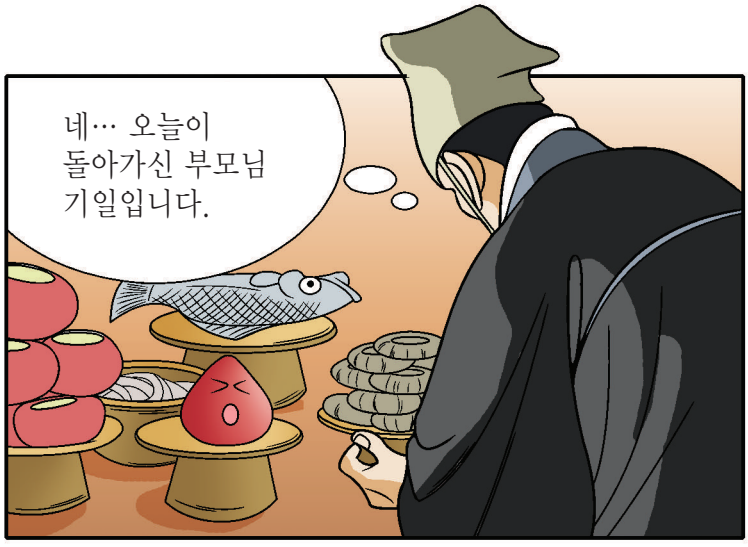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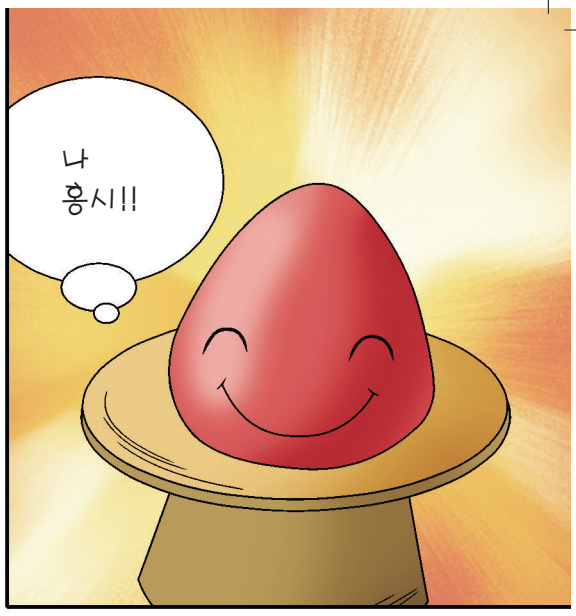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25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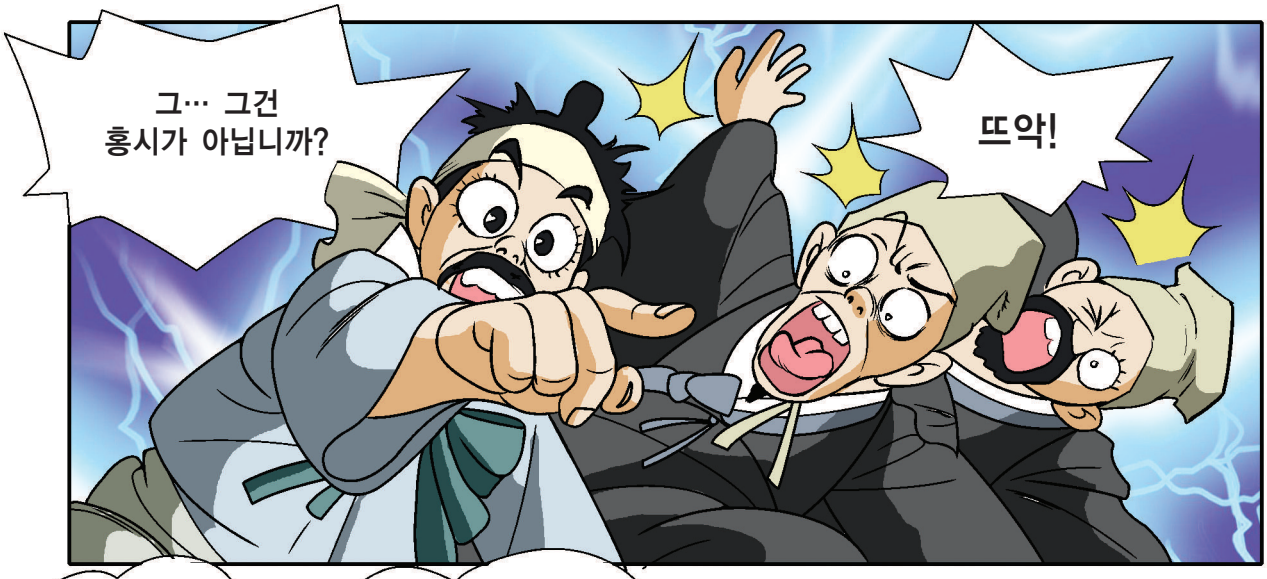



뉘시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천에 사는 도시복이라는 사람입니다만….
예천이라면 멀리서 오셨군요. 무슨일인지는 모르지만 들어오시지요.
이… 곳은….
강릉의 후곡이라는 마을입니다. 어서들어오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기제사를 지내시려나 보군요.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27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28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29 NO.3 Adobe PDF




호랑아
어딨니?
쪽쪽쪽!
♬
고맙다–
호랑아–


주인은 하늘의 뜻이라면서 해마다 성하게 보관되었던 홍시 7~8개만
남겨두고 모두 내 주었다.


꼬끼오~
벌써 아침이네.
수고했다.
네 은혜는 잊지
않을게.
네가 날
살려준 은혜를
갚은거야.
어머! 저기
호…호랑이야!
세… 세상에!
호랑이하고…!!
효자
시복 어른이
호랑이를 타고
어딜다녀
왔나봐!
으으으으~
홍시 맛이 최고야.
아이고~
맛있어라~
이 여름에 먹는
이 홍시맛을
사람들은
알는지 모르겠엉~
어머니-
이 모든 홍시는
다- 어머니 혼자
드실 거니까요.
천천히 며칠동안
아껴서 드세요.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32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33 NO.3 Adobe PDF

제 12 화
서리와 우박피해를 면하다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34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35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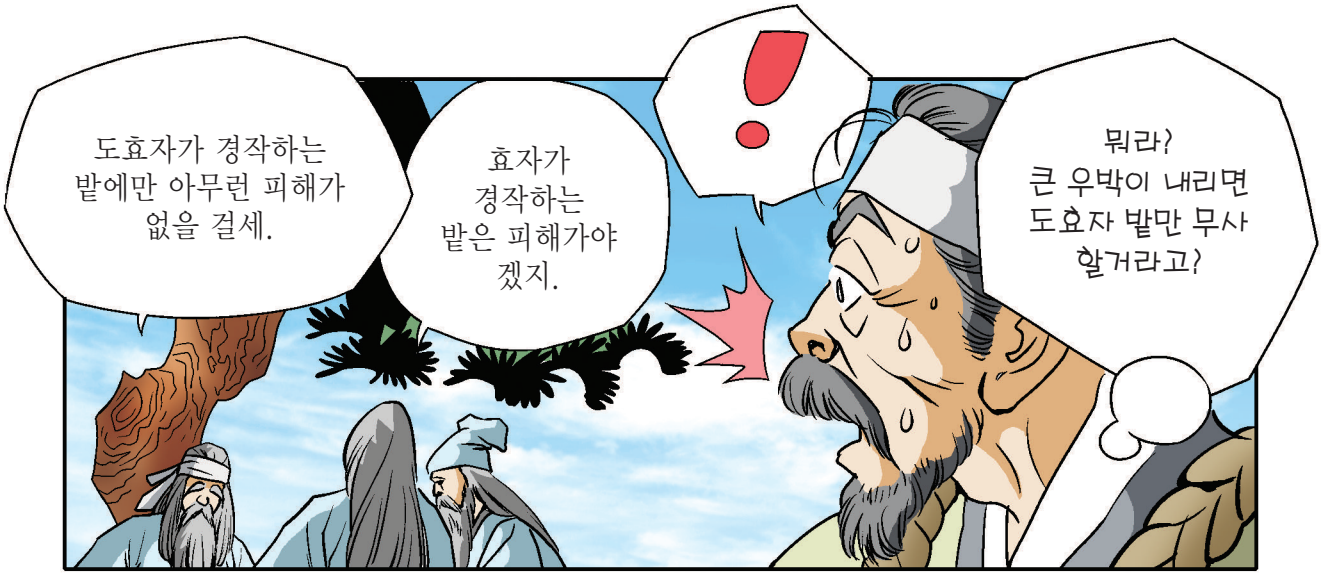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36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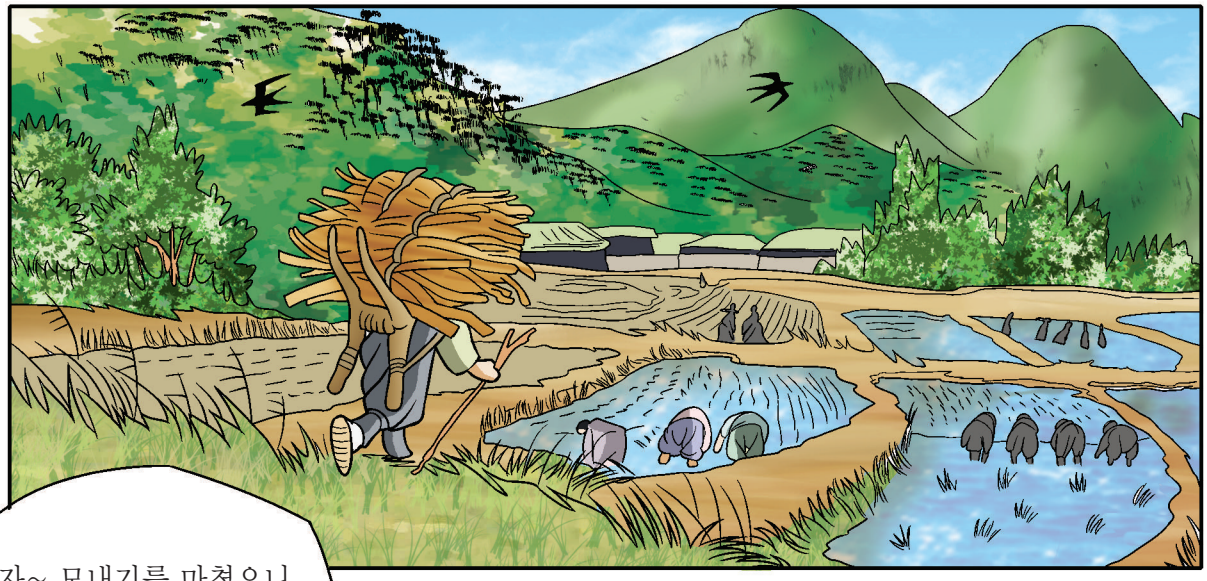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37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38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39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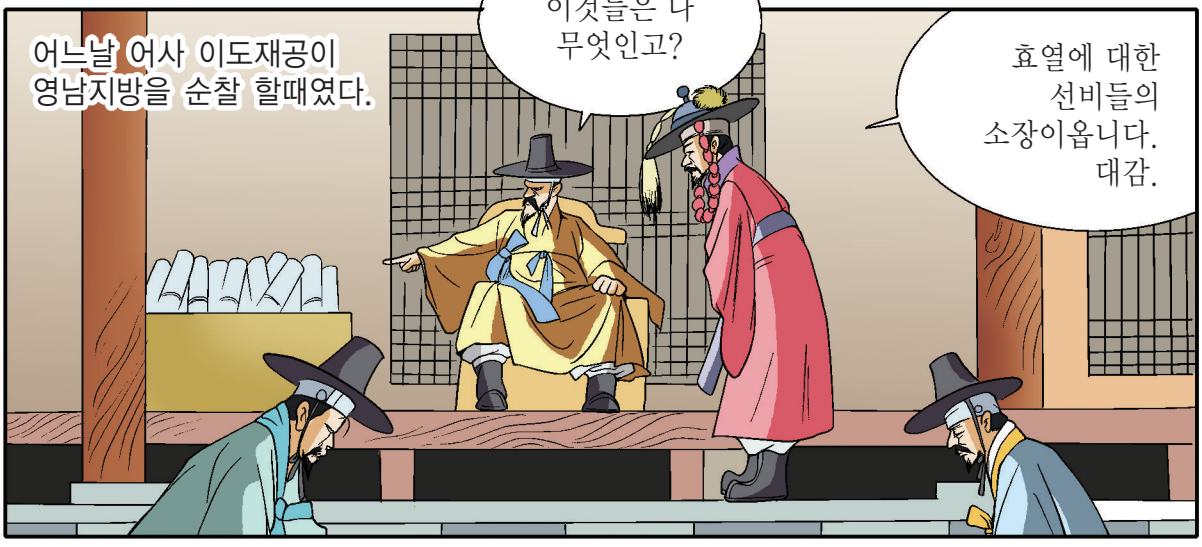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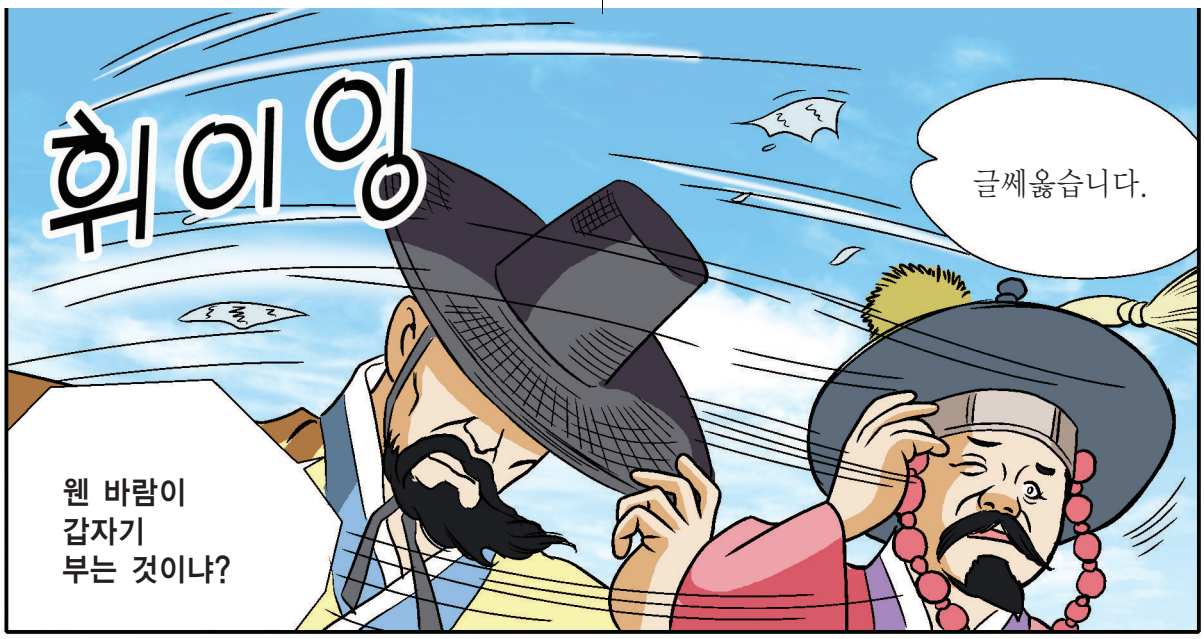

이런 사실들을 알게된 선비들이
소장을 올렸다.
하늘이 낸
효자이니 하늘이
재앙을 면제 해주신
거야.
이런 사실은
조정에 알려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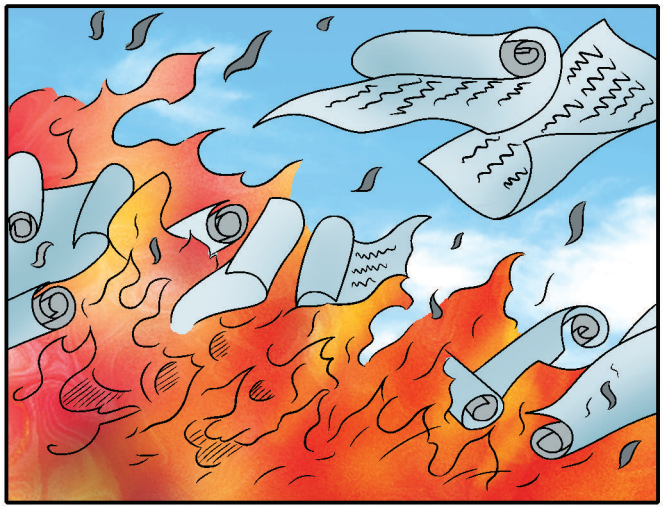

어느날 어사 이도재공이
영남지방을 순찰 할때였다.
이것들은 다
무엇인고?
효열에 대한
선비들의
소장이옵니다.
대감.


허-
아무리 덕망이 높은
영남 지방이지만
효열소장이 왜 이리도
많은 것이냐?
모두 태워
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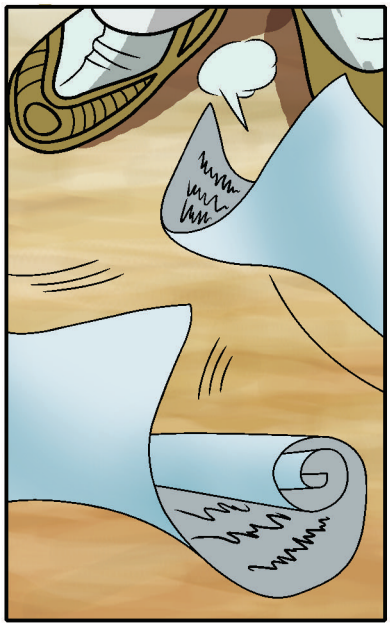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41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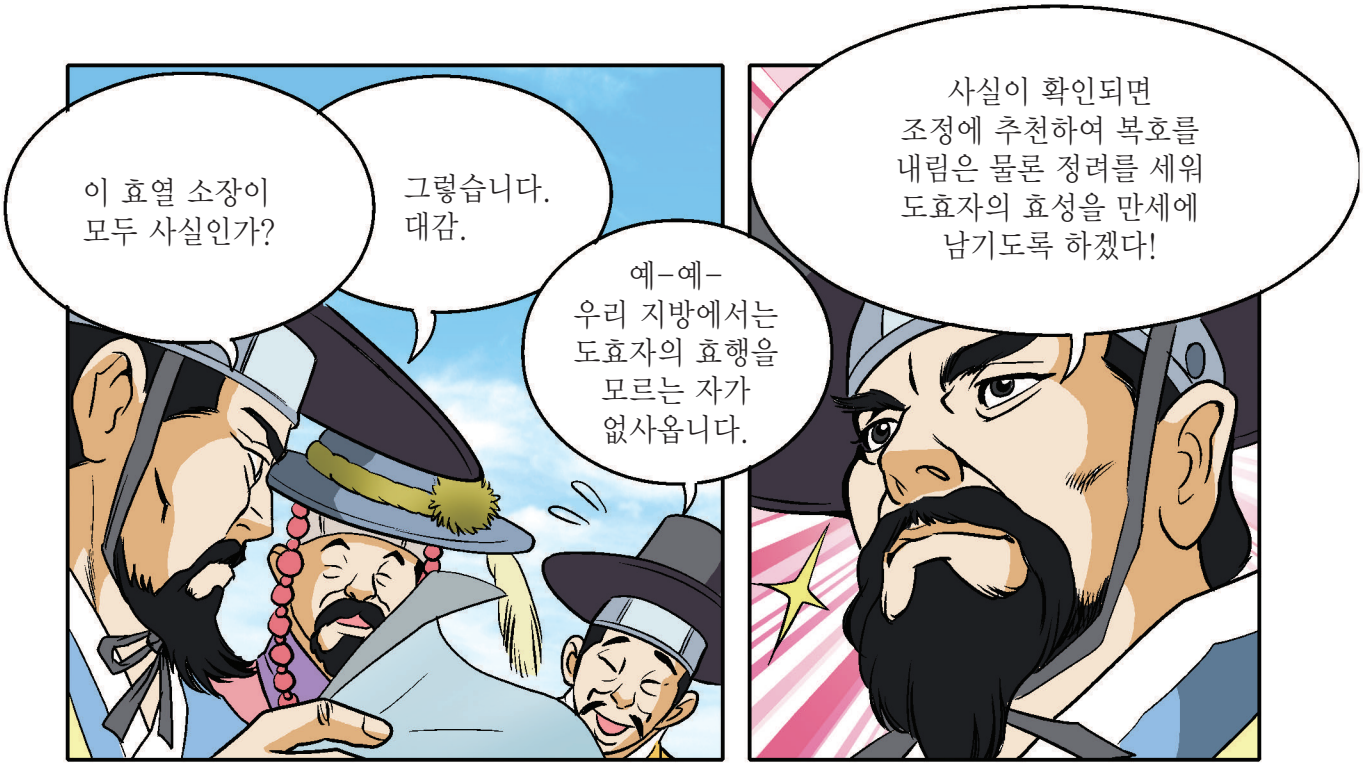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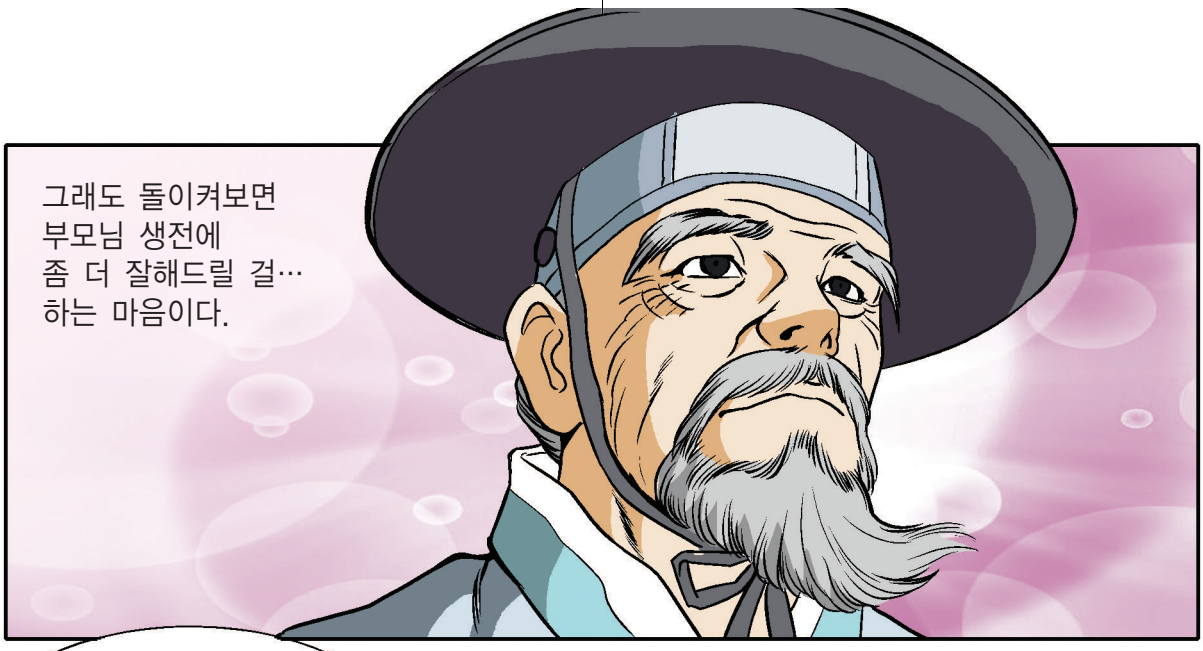


※ 복호 (復戶): 조선시대 충신이나 효자,효부가 난집에 잡부금을 면제하던일
정려 (旌閭): 충신 효자 열녀들을 표창하여 마을 앞에 홍살문 등을 세우게 하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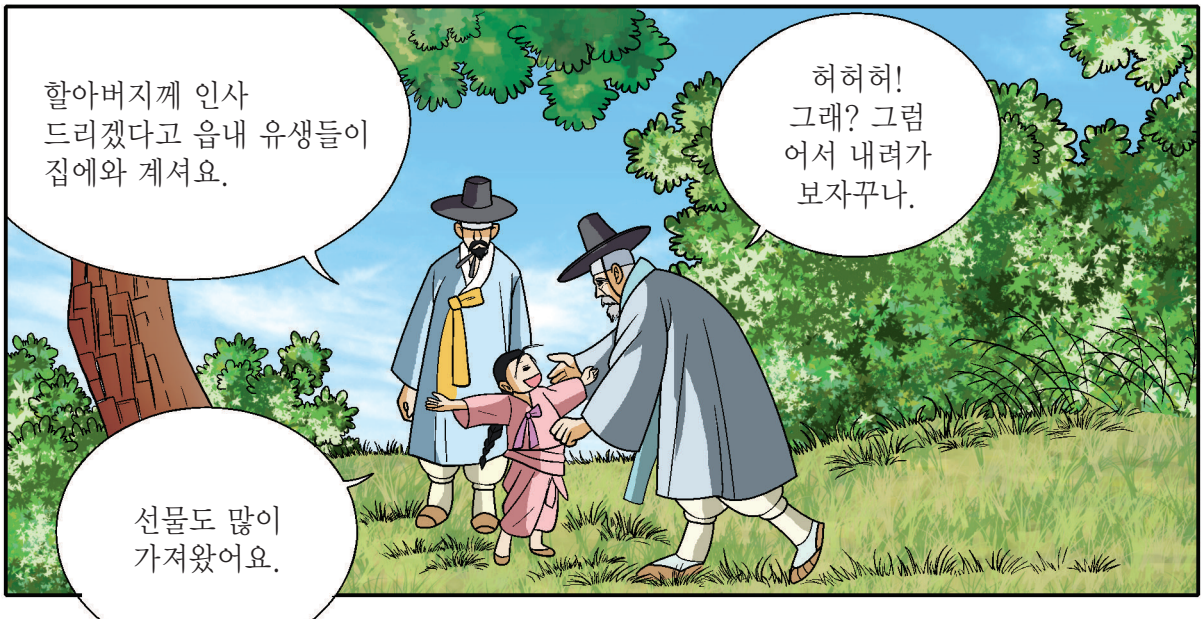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43 NO.3 Adobe 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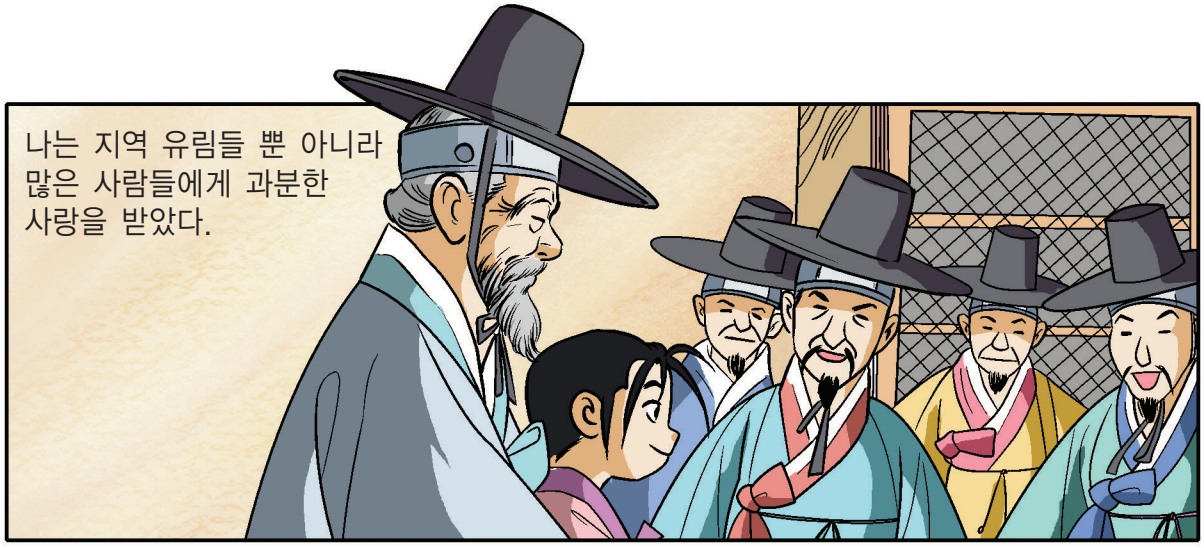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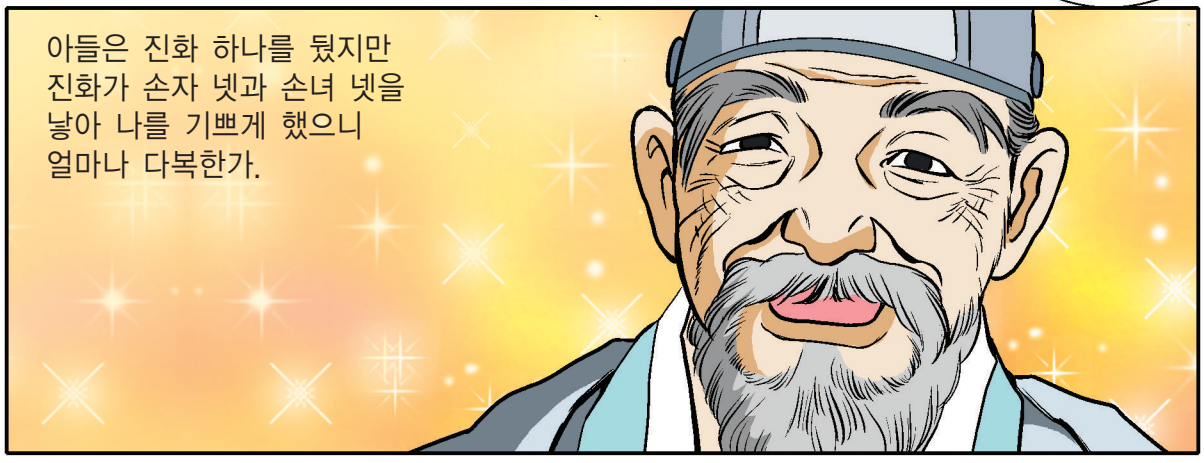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44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45 NO.3 Adobe PDF



신묘년(1891) 팔월 추석 명절에는 출가한 딸 사위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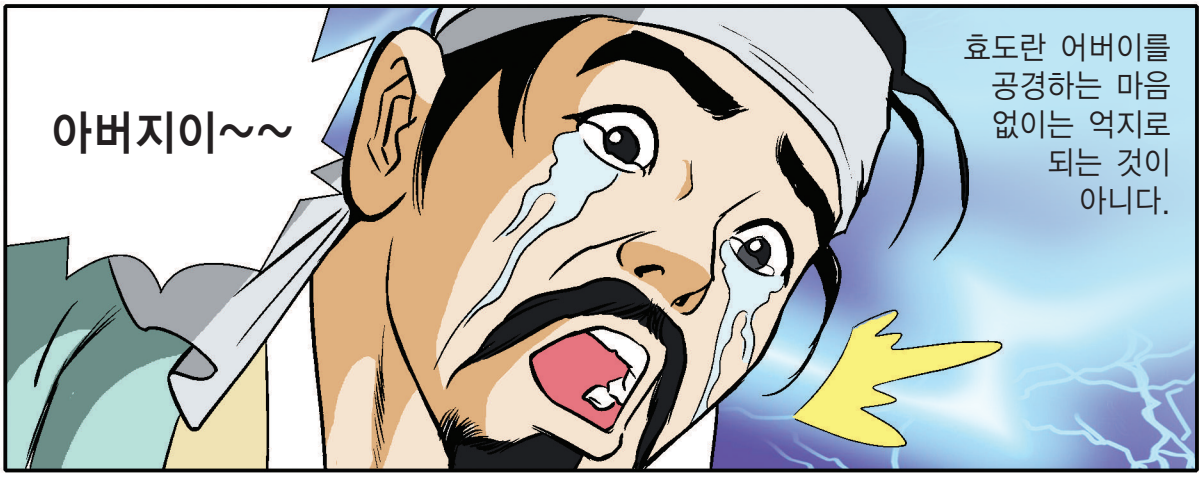
내 기력이 쇠하여져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끼리 모두 연락하여 모인 것이다.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46 NO.3 Adobe PDF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47 NO.3 Adobe PDF







♣ 편집후기 ♣

야계 도시복을 만화로 꾸미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내용을 과장해서라도 재미있게 만들어 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심 끝에 픽션은 삽입하지 않았다.
도시복의 일생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요 효행에 따른 이적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미를 위해 픽션을 가미했다면 독자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구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도효자의 효행에 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만화의 내용에는 단 하나의 픽션도 가미되지 않았고 기록에 의한 사실만을 가지고 만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꾸민 이야기라는 사실을 밝힌다.



[효자 도시복의 묘]

옛말에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 했다.
우리 생활의 모든 행동들이 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알기쉽게 만화로 엮어낸 이 책이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들에게 다시한번 충효예절의 소중함을 알게하고 효행을 몸소 실천해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효자 도시복 생가를 재현해 놓은 효공원]



[효자 도시복의 정려비]



[도효자가 말년에 살았다는 생가를 복원한 집]

도시복본문 2011.8.4 3:29PM 페이지150 NO.3 Adobe PDF

하늘이 낳은 효자

도시복



1판 1쇄 발행 / 2011년 8월 5일

글 · 그림 / 임 강 촌
기획제작 / 예천문화원

발 행 인 / 김 종 배
편　　집 / (주)두레미디어
펴 낸 곳 / (주)두레미디어

감　　수 / 박 근 노(예천군청)
교　　정 / 예천문화원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
전　　화 / 예천문화원 (054)654-3833
　　두레편집부 (031)564-4100

※ 이 책은 예천군청 보조금을 받아 발간되었으며 판권은 예천문화원,
저작권은 예천문화원과 작가 공동에게 있습니다.